

# 주간 통일정세

2016-37

## Contents

###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정세

## ■ 개요

| 분류  | 일자  | 내용  |
|---|---|---|
| 정치  | 9.10  | 日 이노키 의원, 평양서 北 리수용 만나...핵실험 거론 가능성(연합뉴스)   |
|   |   | <北 핵실험> 北 김영남, 핵보유국에 맞게 대외관계 확대발전(연합뉴스)   |
|   |   | 조선신보 “北, 핵무력 끝장 볼 때까지 추진할 것”(연합뉴스)  |
|   | 9.11  | 대북 소식통 “北 김정은, 5차 핵실험 참관한 듯”(연합뉴스)  |
|   | 9.12  | 리용호 북 외무상, 베이징 도착...중 고위급 접촉 관심(연합뉴스)   |
|   |   | 北 매체 “당당한 핵보유국” 선전(연합뉴스)  |
|   |   | 北 노동신문, 핵시험 성공 소식에 온나라 들끓어(연합뉴스)<br>北, 핵보유국 지위로 美 대조선침략사에 중지부 찍겠다(연합뉴스)             |
|   | 9.13  | 김정은, 5차 핵실험후 첫 공개활동...군부대 농장 시찰(연합뉴스)   |
|   |   | 北 김영남, 베이징 도착...비동맹회의 참석길에 경유(연합뉴스)   |
|   |   | 처형된 北부총리, 12년 의무교육제 실패의 희생양(연합뉴스)   |
|   |   | 北, 적들이 조금이라도 움찔거리면 핵 선제타격할 것(연합뉴스)  |
|   | 9.14  | 北핵무기연구소는 핵탄두개발기관...소장 리홍섭은 제재대상(연합뉴스)   |
| 北 외교사절 초청 정세설명...美 핵 위협에 핵 공격 능력 강화(연합뉴스)<br>北, 금강산종합봉사소 건립 추진...50억원 투자유치 공고(연합뉴스) |   |   |
| 9.15  | 김정은, 핵실험 후 잇단 민생 행보...보건산소공장 시찰(연합뉴스)   |   |
|   | 北, 평안남도·남포에서도 ‘핵실험 성공 자축’ 행사(연합뉴스)<br>북한서 468번째 세상둥이...1994년부터 체제선전에 동원(연합뉴스) |   |
| 9.16  | 北 리용호, 미국 도발에 추가 공격 준비돼 있다(연합뉴스)  |   |
| 경제  | 9.12  | 북중 접경 제재 ‘느슨’...5차핵실험 이후도 교역중단없어(연합뉴스)  |
|   | 9.13  | 北 고위 대표단, 핵실험 뒤 러 극동 방문 경험 논의(연합뉴스)   |
|   | 9.14  | AP통신, 北나선특구는 여전히 북적...대북제재 한계 보여줘(연합뉴스)   |
| 사회 문화   | 9.10  | <北 핵실험> 길주 출신 탈북자들 신체 이상...희귀병 진단도(연합뉴스)  |
|   | 9.11  | 北, 홍수 피해복구에 200일 전투 역량 총동원(연합뉴스)  |
|   | 9.12  | 北 “수해복구에 총동원·총집중” 연일 독려(연합뉴스)   |
|   |   | 아시아 “투먼공단 북한 근로자 감독관, 핵실험 당일 ‘축배’”(연합뉴스)<br>유엔, 북한 홍수 사망자 133명으로 늘어...395명 실종(연합뉴스) |
|   | 9.13  | 北 두만강 범람...회령 강안동 주민 20% 사망·실종(연합뉴스)  |

|          |      |  |   |  |   |
|----------|------|--|---|--|---|
|          | 9.15 | 北 홍수피해 지역에 예술단까지 보내 복구 독려(연합뉴스)<br>北 홍수로 현재까지 138명 사망, 400여명 실종(연합뉴스)  |   |  |   |
|          | 9.16 | 北 청소년들, 한국 EBS 영어 프로그램 선호(연합뉴스)<br>北매체, 홍수피해 현장 공개...마을 하나가 축대발(연합뉴스)  |   |  |   |
| 외교<br>국방 | 9.10 | <北 핵실험> 미국인 60% “북핵은 중대 위협”...81% 제재 지지(연합뉴스)<br><北 핵실험> “中, 안보리서 ‘6자회담 통한 대화 지지 언급”(연합뉴스)<br><北 핵실험> 中 언론 대서특필...‘국제사회 비난’ 부각(연합뉴스)<br><北 핵실험> 中 관영언론, 북한을 질식하게 하는 독성 지녀(연합뉴스)<br><北 핵실험> 日국회, 오는 14일 규탄 결의안 채택 추진(연합뉴스)<br><北 핵실험> 유럽, 유엔결의 위반 강력 규탄...평화안보에 중대 위협(연합뉴스)<br><北 핵실험> 안보리 ‘유엔헌장 41조’ 이례적 언급 주목(연합뉴스)<br><北 핵실험> 하루만에 55개국·5개 기구 규탄 성명(연합뉴스)<br><北 핵실험> CTBT준비위, 규탄 보고서 채택...심각한 우려(연합뉴스)<br><北 핵실험> 불가리아 등 北 전통우방 동유럽국도 규탄 동참(연합뉴스)<br><北 핵실험> 멕시코 “국제 평화·안보 위협 행위” 규탄(연합뉴스)<br><北 핵실험> 中전문가, 北 이미 초보적 핵타격력 갖췄다(연합뉴스)<br><北 핵실험> 美 북한연구기관에 핵실험 이틀전 사이버공격(연합뉴스) |   |  |   |
|          |      | 9.11   | 北 외무성, 美 오바마 대북 핵실험 규탄 성명 비난(연합뉴스)<br><北 핵실험> 美의회 지도부·외교·군사위원 등 20여명 릴레이 北규탄성명(연합뉴스)<br><北 핵실험> NYT “북한, 미치기는커녕 너무 이성적”(연합뉴스)<br><北 핵실험> 中, 北대사 초치...“긴장고조 행위 중단하라”(연합뉴스)<br>아베, 대북 독자제재강화 지시...자산동결·송금규제 강화 부상(연합뉴스)<br><北 핵실험> 美본토공격 우려 점증...머지않아 시카고 공격가능(연합뉴스)<br>北 다음 도발 수순은...美본토 겨냥 ICBM 시험발사할 듯(연합뉴스) |  |   |
|          |      |  | 9.12  | 성김 美6자수석 방한...北도발에 강력대응 긴밀 협력(연합뉴스)<br>中 “北핵실험, 방사능 오염 없어...모니터링 계속”(연합뉴스)<br>아베, 자위대 회의...北핵·미사일 전례없는 사태...용인못해(연합뉴스)<br>[단독] 소식통, 北 풍계리핵실험장 3번 갱도서도 핵실험 준비 끝(연합뉴스) |   |
|          |      |  |   | 9.13   | 루 美제무, 北정책 바꾸는 게 제재 목표...핵보유 용납안돼(연합뉴스)<br>브룩스 사령관, 北핵실험 절대 수용못해...단계적 작전 수행할것(연합뉴스)<br>美 “흔들림없다” 확장억제 거듭 강조...핵무장·전술핵 선긋기(연합뉴스)<br>대북압박 효과적, 문제는 北의지...한미, 대화론에 쉼기(연합뉴스)<br>아사히신문 “北, 핵실험 中에 사전설명...中, 반대 입장 전해”(연합뉴스)<br>방북 日이노키 의원 “北 ‘핵실험, 미국을 향한 것’이라고 얘기”(연합뉴스) |

|      |  |
|------|--|
|      | <p>타스 “러, 김형중 주러北대사 불러 핵실험 우려 표시”(연합뉴스)</p> <p>‘北영변 방문’ 美해커 박사 “北, 매년 7개씩 핵무기 제작가능”(연합뉴스)</p>  |
| 9.14 | <p>北, 美 B-1B 전략폭격기 출격에 “경거망동 말라” 위협(연합뉴스)</p> <p>‘38노스’ 조엘 위트 “북한, 최소 3회 ‘즉시 핵실험 가능’(연합뉴스)</p> <p>中 관영인론, 北 핵탄두 기술 수준에 ‘의문’ 제기(연합뉴스)</p>   |
| 9.15 | <p>샤프 前 주한미군 사령관 “北, 통일 전엔 핵 포기 안할것”(연합뉴스)</p> <p>美전문가, 北 핵개발 몰두하며 수해지원 요청 이중행태(연합뉴스)</p> <p>中 왕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찬성...일방제재는 반대(연합뉴스)</p> <p>러, 새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참여 의사 밝혀(연합뉴스)</p> <p>유엔서 미·중 대북제재안 의견조율...신속 추진 예상(연합뉴스)</p> |
| 9.16 | <p>美에도 수해구호 요청한 北, 정작 中에는 안 해(연합뉴스)</p> <p>北 노동미사일 정확도 높아졌다...1천km 비행·오차 1km 이내(연합뉴스)</p>  |

## ■ 주간 동향

### 1.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2016. 9. 11.

##### ■ 대북 소식통 “北 김정은, 5차 핵실험 참관한 듯”(연합뉴스)

-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9일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단행한 5차 핵실험을 참관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11일 제기됨.
- 한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이 9일 새벽 2시께 함경북도 어랑군 소재 어랑공항에 전용기를 타고 도착했다”며 “어랑공항은 육로를 따라 승용차로 풍계리까지 이동할 수 있는 최단거리 공항”이라고 밝힘.
- 김정은이 지난 3월 핵탄두 폭발시험과 탄도로켓 시험발사를 계속할 것을 주문했고, 이번에 북한 주장대로 핵탄두 폭발시험을 한 것이라면 충분히 참관해 ‘리더십’을 과시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핵실험 때는 방사성 물질 누출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김정은이 풍계리 핵실험장 직접 방문하기보다는 함경북도에 있는 특별 초대소에 모니터를 설치해 놓고 핵실험과 관련해 지시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았을 것이란 주장도 나옴.
-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김정은의 5차 핵실험 참관 여부에 대해 “관련 정보가 없다”고 밝힘. 군의 한 관계자는 “김정은이 핵실험 당일 방문한 것이 아니라 핵실험 전 격려방문을 했을 수도 있다”고 말함.

2016. 9. 13.

##### ■ 김정은, 5차 핵실험후 첫 공개활동…군부대 농장 시찰(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제5차 핵실험(9월 9일) 이후 첫 공개 일정으로 군부대 산하 농장을 시찰함. 김 위원장은 인민군 제810군부대 산하 1116호농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이 13일 보도함.
- 지난해 8월에 이어 이 농장을 재방문한 김 위원장은 “농장에서 새로 육종(기존 품종을 개량)해낸 강냉이와 밭벼 종자에 대한 보고를 받고 너무 기뻐 찾아왔다”면서 “이 농장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볼 때면 가슴이 시원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은 밝힘.
- 이날 김정은의 시찰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오수용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조용원 당 중앙위 부부장, 한광상 군 중장이 동행했다고 통신은 덧붙임.

2016. 9. 15.

■ **김정은, 핵실험 후 잇단 민생 행보…보건산소공장 시찰(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제5차 핵실험(9월 9일) 이후 잇단 민생 행보로 ‘애민 지도자’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음.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새로 건설된 보건산소 공장을 시찰했다고 15일 보도함.
- 김정은은 “비록 크지 않지만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는 작고도 큰 공장”이라며 “인민들이 그 덕을 단단히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함.
- 이날 시찰에는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강봉훈 당 중앙위 부부장, 마원춘 국무위원회 설계국장이 동행했다고 통신은 밝힘.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6. 9. 10.

■ **日 이노키 의원, 평양서 北 리수용 만나…핵실험 거론 가능성(연합뉴스)**

- 북한을 방문 중인 안토니오 이노키 일본 참의원 의원이 10일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났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교도는 이노키 의원이 스포츠 교류를 목적으로 평양을 방문했지만 지난 9일 북한이 감행한 5차 핵실험에 대해 의견을 나눴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함.
- 리 부위원장은 조일(북일)우호친선협회의 고문을 맡고 있으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고 교도는 덧붙임.

2016. 9. 12.

■ **리용호 북 외무상, 베이징 도착…중 고위급 접촉 관심(연합뉴스)**

-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유엔 총회참석 등을 위한 경유 방문으로 베이징에 도착함.
- 12일 교도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리용호 외무상은 이날 평양에서 출발해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에 도착함.
- 리 외무상은 베네수엘라에서 개최되는 비동맹운동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보도함.

2016. 9. 13.

■ **北 김영남, 베이징 도착…비동맹회의 참석길에 경유(연합뉴스)**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베네수엘라에서 열리는 비동맹운동(NAM)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3일 평양을 출발, 중국 베이징에 도착함.
-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이날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의 영접을 받으며 공항을 빠져나갔다. 중국측도 이날 5-6대의 의전차량을 준비, 김 위원장이 탄 북한대사관 차량을 인도함.
-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대북제재로 외교적 고립위기에 처한 북한은 비동맹 외교에 주력하고 있음.

■ **처형된 北부총리, 12년 의무교육제 실패의 희생양(연합뉴스)**

- 지난 7월 처형당한 김용진 북한 내각 부총리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12년 의무교육제 실패의 희생양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됨.
- 탈북자 단체인 북한전략센터의 강철환 대표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11년제 의무교육에서 12년 의무교육으로 교육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발표해놓고서 그 어떤 국가적인 지원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주장함.
- 12년제 의무교육은 김정은 정권 들어 ‘지식경제강국’을 추구하는 북한의 핵심 교육정책으로 꼽혀옴.

2016. 9. 14.

■ **北핵무기연구소는 핵탄두개발기관…소장 리홍섭은 제재대상(연합뉴스)**

- 5차 핵실험에 성공했다는 성명을 발표한 북한 핵무기연구소는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 핵탄두 개발기관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도쿄신문이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14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핵무기연구소는 군수공업부 산하 ‘83연구소’의 별명인 것으로 여겨지며, 리홍섭 전 영변 원자력연구소장이 현재 소장을 맡고 있다고 소식통이 밝힘.
- 리 소장은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한 직후인 2009년 7월 유엔의 제재대상으로 지정됐으며 한국, 미국, 영국 등도 그를 독자 제재대상으로 삼고 있음.

2016. 9. 16.

■ **北 리용호, 미국 도발에 추가 공격 준비돼 있다(연합뉴스)**

-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15일(현지시간) “북한은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투입한 미국의 도발에 맞서 다른 공격을 개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힘. 리 외무상은 베네수엘라 마르가리타 섬 포르라마르 시에서 열린 제17차 비동맹운동 각료회의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함.
- 그는 이 자리에서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은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것이었으며 한반도에서의 미군 활동에 맞서기 위한 ‘정당한’ 방어 정책이었다고 주장함.
- 리 외무상은 비동맹회의 참석에 이어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 오는 24일 기조연설을 할 예정임.

## 다. 공식행사

2016. 9. 10.

### ■ <北 핵실험> 北 김영남, 핵보유국에 맞게 대외관계 확대발전(연합뉴스)

-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북한은 “핵보유국의 지위에 맞게 대외 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방송이 10일 보도함.
- 김영남은 지난 9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된 국경절 68주년 경축연회에서 연설자로 나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지주의 강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맞게 대외 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함.
- 이날 경축연회에는 김 상임위원장 이외에 박봉주 내각 총리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 등이 참가했다고 방송은 전함.

## 라. 주요 기관 행위

2016. 9. 14.

### ■ 北 외교사절 초청 정세설명…美 핵 위협에 핵 공격 능력 강화(연합뉴스)

- 북한이 14일 평양 주재 아시아 국가들의 외교사절을 초청해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면서 미국의 핵 위협이 북한의 핵 공격 능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함.
- 최희철 아시아 및 오세안주 총국장은 이날 “(9일) 핵탄두 폭발 시험을 통하여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를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미국의 극악무도한 핵 위협 공갈이 조선의 핵 공격 능력을 시시각각으로 강화하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힘.
- 최 총국장은 “공화국은 앞으로도 핵무장을 절대로 손에서 놓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을 근원적으로 종식하기 위한 국가 핵 무력의 질량적 강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함.

- 이번 정세정보모임에는 북한주재 몽골,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인도 대사들과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 이란, 파키스탄 임시대리대사들이 참가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 北, 금강산종합봉사소 건립 추진...50억원 투자유치 공고(연합뉴스)

- 북한이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에 있는 금강산 온천과 구룡각 자리에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건립을 추진함.
- 북한은 지난 9일 웹사이트 ‘금강산’에 ‘금강산종합봉사소 투자안내서’라는 제목의 공고를 게재해 “금강산 온천과 구룡각 자리에 금강산 지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 온천치료와 식사, 수영, 오락을 비롯한 종합적인 봉사를 제공하는 현대적인 시설을 새로 꾸리려고 한다”고 밝힘.
- 합작 투자방식에 투자유치 규모는 미화 455만달러(약 50억3천만원)로, 이행 기간은 건설 12개월에 운영 10년이라고 나와 있음.

2016. 9. 15.

#### ■ 北, 평안남도 남포에서도 ‘핵실험 성공 자축’ 행사(연합뉴스)

- 북한이 평양에 이어 평안남도와 남포시에서도 지난 9일 감행한 제5차 핵실험에 대한 축하행사를 열었음.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주체 조선의 국력을 힘있게 과시한 핵탄두폭발시험성공을 경축하는 평안남도, 남포시 군민연환대회가 14일에 각각 진행되었다”고 보도함.
- 박태성 평안남도위원장과 강양모 남포시당위원장이 각각 북한 핵무기연구소 성명을 낭독했다고 신문은 전함.

#### ■ 북한서 468번째 세쌍둥이...1994년부터 체제선전에 동원(연합뉴스)

- 북한 평양산원(여성종합병원)에서 지난달 6일 468번째 세쌍둥이가 태어남.
- 북한의 인터넷 선전 매체인 ‘메아리’는 지난 12일 “황해남도 신천군 룡산리의 리금옥 여성이 지난 8월 6일 아들 세쌍둥이를 낳았다”며 “태어날 당시 아기들의 몸무게는 1.5kg, 1.45kg, 1.52kg이었는데 지금은 평균 2kg을 넘어섰다고 한다”고 밝힘.
- 북한은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세쌍둥이의 탄생을 체제선전에 활용하고 있음.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2016. 9. 10.

### ■ 조선신보 “北, 핵무력 끝장 볼 때까지 추진할 것”(연합뉴스)

-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0일 “(북한은) 이미 시작한 핵 무력 강화 계획을 끝장을 볼 때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함.
- 조선신보는 이날 ‘자기 운명은 오직 자기 힘으로, 전쟁억제를 위한 단호한 조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의 오바마 정권이 전쟁연습과 (대북) 제재소동으로 남은 임기를 채우기로 결정한 조건에서 (북한은) 수소탄 시험을 기점으로 하는 새 단계의 핵 무력강화 계획을 끝장을 볼 때까지 주저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보도함.
- 신문은 “(앞으로) 미국과 추종세력이 헤어날 수 없는 궁지에 더 깊이 몰아넣기 위한 과격력(과괴력)이 큰 사변적인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취해질 것”이라고 위협함.

2016. 9. 12.

### ■ 北 매체 “당당한 핵보유국” 선전(연합뉴스)

- 북한 매체들이 5차 핵실험과 관련한 주민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면서 ‘당당한 핵보유국이 됐다’고 선전하고 있음.
- 북한의 인터넷 매체인 메아리는 12일 “핵무기연구소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새로 연구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관정을 위한 핵폭발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소식은 천만 군민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다”고 전함.
- 이밖에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은 “반세기 이상이나 지속된 미국의 핵 위협 공갈이 우리를 핵보유에로 떠밀었다면 핵 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오늘날에 와서까지 날로 노골화되는 미국의 반공화국 적대시 책동은 우리를 핵 무력고도화로 떠밀어줄 뿐”이라고 주장함.

### ■ 北 노동신문, 핵시험 성공 소식에 온나라 들끓어(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5차 핵실험과 관련한 주민들과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면서 “(핵탄두 폭발시험이 성공했다는 내용의) 핵무기연구소 성명에 접하고 온 나라가 들끓는다”고 보도함.
- 리일배 만경대구역당 위원장은 노동신문에 “우리의 핵과학자, 기술자들이 이룩한 눈부신 성과에 고무되어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조선속도를 창조해나갈 각계층 근로자들의 불타는 결의가 온 강산에 차넘치고 있다”고 주장함.

- 그는 “공화국 창건 68돌이 되는 뜻깊은 날에 또 하나의 특대사변에 접한 그 시각부터 흥분된 마음을 진정할 수 없다”며 “오늘의 이 승리를 위해 한평생 선군의 길을 이어오신 위대한 장군님(김정일)에 대한 그리움이 못 견디게 사무쳐온다”고 덧붙임.

#### ■ 北, 핵보유국 지위로 美 대조선침략사에 종지부 찍겠다(연합뉴스)

- 북한이 강대한 핵보유국의 지위로 ‘미국의 대조선침략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으름장을 놓음.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6면 논평에서 “최근 우리의 핵무기연구소 과학자, 기술자들이 성과적으로 진행한 핵탄두폭발시험은 이 세상 그 어느 열강도 조선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라고 밝힘.
- 신문은 “지난 조선전쟁(남북전쟁)시기 미제는 저들의 거둬되는 참패를 만회하기 위해 우리 인민군대는 물론 평화적 주민들을 대상으로 세균 및 화학무기까지 서슴없이 사용하였다”며 “우리 군대는 원자탄을 휘두르며 날뛰던 미제를 보기 좋게 타승하고 항복서를 받아냈다”고 날조하기도 함.

2016. 9. 13.

#### ■ 北, 적들이 조금이라도 움푹거리면 핵 선제타격할 것(연합뉴스)

- 북한은 최근 감행한 제5차 핵실험 축하행사를 13일 열고 '핵 선제타격'을 거론하며 미국과 우리나라 등을 위협함.
- 윤동현 북한 인민무력성 부상은 이날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핵탄두 폭발시험 성공을 경축하는 평양시 군민연환대회’에서 “우리는 고도의 격동 태세에서 날강도 미제와 그 주구들의 무모한 반공화국 침략전쟁 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가 보도함.
- 이날 행사의 주석단에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당·정·군 간부들이 자리함.

## 2. 경제

### 가. 정책 동향

#### ■ 특이사항 없음

### 나.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 특이사항 없음

라. 대외 경제 관계

2016. 9. 12.

■ 북중 접경 제재 ‘느슨’…5차 핵실험 이후도 교역중단없어(연합뉴스)

- 올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동안 주춤하는듯했던 북중 접경지역의 교역이 살아나는 조짐이며,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도발에도 교역이 중단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됨.
- 12일 북중접경 소식통들에 따르면 핵실험이 감행된 지난 9일 오전 10시(중국시간)에도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서 출발한 열차가 일반 객차 외에 화물칸을 연결한 채 압록강 건너 신의주로 향했고 10일, 11일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펼쳐짐.
- 접경 관광산업 내부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몇달 전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분위기를 타고 북한관광상품 판매를 중지한 여행사가 많았으나 슬그머니 판매를 재개하고 있다”고 말함.

2016. 9. 13.

■ 北 고위 대표단, 핵실험 뒤 러 극동 방문 경험 논의(연합뉴스)

- 러시아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극동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지난해 4배 이상 증가한 양국 간 철도 운송이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두 나라 간 두만강 국경을 가로지르는 교량(부교) 건설 협상도 빠르게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북한은 최근 태풍과 홍수로 대규모 피해를 당한 연해주 지역의 재난 복구 사업 지원을 제안하는 등 러시아에 ‘구애’ 공세를 펼치고 있음.

2016. 9. 14.

■ AP통신, 北나선특구는 여전히 북적…대북제재 한계 보여줘(연합뉴스)

-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에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제재의 허점을 보여 주듯 나선(나진·선봉)경제특구는 여전히 북적이고 있다고 AP통신이 전함.
- 평양에 지국을 둔 AP통신은 13일 ‘무역 특구의 북적임이 대북제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 직전에 방문한 나선 특구의 분위기를 설명함.
- AP통신은 “중국·러시아와의 접경지역에는 관광호텔이 건설 중이고, 석탄 더미가 상하 이로의 선적을 기다리고 있으며, 시장에는 미키마우스 신발부터 말린 키위까지 상품이 넘쳐나고 있다”고 묘사함.

### 3. 사회문화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2016. 9. 11.

##### ■ 北, 홍수 피해복구에 200일 전투 역량 총동원(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발생한 함경북도 홍수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 6월 시작한 속도전 사업인 ‘200일 전투’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또 밝힘.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최근 조선의 북변 두만강 연안에서 해방 후 기상관측이래 처음 보는 돌풍이 불어치고 무더기 비가 쏟아져 여러 시, 군에서 막대한 자연재해를 입었다”며 “조성된 비상사태에 대처하여 조선(북한) 노동당은 200일 전투의 주 타격방향을 북부피해복구전투에로 전환시키는 중대결단을 내리었다”고 보도함.
- 북한은 이번 홍수로 현재까지 60명이 사망하고, 25명이 행방불명됐다고 밝힘. 또 수만 세대의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이 무너졌으며 철길과 도로를 비롯한 교통망과 전력공급 계통, 공장, 기업소, 농경지들이 파괴되거나 침수됐다고 전함.

2016. 9. 12.

##### ■ 北 “수해복구에 총동원·총집중” 연일 독려(연합뉴스)

- 북한 매체가 최악의 폭우로 인해 발생한 함경북도 지역 수해복구 작업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자고 연일 독려하고 나섬.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1면 사설을 통해 “국가의 인적, 물질, 기술적 잠재력을 함(경)북도 북부 피해복구 전선에 총동원, 총집중하도록 한 것과 같은 중대결단은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는 구호를 높이 받들고 나아가는 우리 당만이 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보도함.

- 사설은 “함북도 북부 피해복구 전투는 인민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는 우리 당만이 펼칠 수 있는 거창한 투쟁”이라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북부 지대의 큰물(홍수) 피해복구 전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최우선적으로 생산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다그침.

2016. 9. 15.

■ **北, 홍수피해 지역에 예술단까지 보내 복구 독려(연합뉴스)**

- 북한이 함경북도 수해 지역에 예술단까지 보내며 복구를 독려하고 있음.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격전장마다 울려퍼지는 혁명의 북소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함북도 북부 피해복구전선에서는 만수대예술단, 피바다가극단, 국립교예단, 국립연극단, 중앙예술경제선전대를 비롯한 많은 예술단체들이 달려나와 혁명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고 있다”고 보도함.
- 신문은 “그들은 전격적으로 피해지역의 시,군들을 타고앉아 1950년대 화선예술인들처럼 며칠동안에 수십차례의 공연을 진행하였다”며 “여기에 각 예술선동대원들의 공연과 강연강사들의 활동까지 합치면 그 수는 헤아릴 수 없다”고 전함.
- 또 신문은 ‘전화위복의 대승리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정론을 통해서도 “화를 복으로 만들자”며 “재난의 휩쓸고간 땅에 온 세상이 부러워 바라볼 인민의 낙원, 사회주의 무릉도원을 또다시 눈부시게 안아올리자”고 독려함.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6. 9. 10.

■ **<北 핵실험> 길주 출신 탈북자들 신체 이상…희귀병 진단도(연합뉴스)**

- “가만히 서 있어도 몸에 땀이 나고, 아무리 잘 먹어도 힘이 빠지면서 두통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한국에 와서야 길주에서 떠돌던 ‘귀신병’의 원인이 핵실험 탓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함경북도 길주읍에서 북한의 3차례 핵실험을 경험한 탈북 남성)

- “2010년부터 시력이 1.5에서 0.8로 떨어졌어요. 피곤을 많이 느끼고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아파 잡아 뜯어 놓고 싶을 정도였고요, 병원에 가니 희귀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함경북도 길주읍에서 2차례 핵실험을 경험한 탈북 여성)
- 북한이 2006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다섯 차례의 핵실험을 단행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근처에 살던 북한 주민들은 원인 모를 두통, 시력 저하 등의 신체 이상 현상을 겪는 것으로 조사됨.
- 최경희 통일비전연구회장은 북한의 1~3차 핵실험을 근처에서 경험한 함경북도 길주군 길주읍 출신 탈북자 17명을 심층면접 조사한 자료를 10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힘.
-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최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핵 없는 세상 만들기’ 국제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핵실험은 지금까지 모두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라는 지역에서 실시됐다”면서 “핵실험장에서 불과 30km 정도 떨어진 마을 출신인 탈북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지역 주민 중 상당수가 암, 심장병, 감각기관 이상, 다리 마비 등의 증상을 겪고 있다”고 말함.

2016. 9. 12.

■ **아사히 “투먼공단 북한 근로자 감독관, 핵실험 당일 ‘축배’”(연합뉴스)**

- 중국 지린(吉林) 성 연벵(延邊) 자치주 투먼(圖們) 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도 북한의 5차 핵실험 소식을 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특히 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파견돼 있는 남성 감독관들은 핵실험 당일인 지난 9일 매점에서 술을 사다 축배를 하며 핵실험을 지축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2일 전함.
- 그러나 현지 주민들은 올해 1월 4차 핵실험이 있는지 얼마 지나지 않은 탓인지 이번 핵실험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으며 방사능 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었음. 한 남성은 “미국이 강경하게 나오지 않으면 북한도 이렇게까지는 많았을 것”이라고 말함.

■ **유엔, 북한 홍수 사망자 133명으로 늘어…395명 실종(연합뉴스)**

- 최근 북한 함경북도 일대를 강타한 홍수로 133명이 숨지고 395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됨.
- 또 두만강 주변에 사는 북한 주민 10만7천여 명이 집을 떠나 대피했다고 AFP통신 등이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을 인용해 12일(현지시간) 보도함.
- OCHA에 따르면 북한 내 3만5천500 가구 이상이 홍수 피해를 봤으며, 이 가운데 69%는 가옥이 완전히 무너짐. 훼손된 공공건물도 8천700채에 이룸.

- 북한은 산악 지형이지만 산이 대부분 민둥산이나 계단식 논으로 변모해 빗물이 걸잡을 수 없이 비탈 아래로 내려가 홍수에 취약하다고 AFP는 설명함. 2012년 여름에는 북한에서 대규모 홍수로 최소 169명이 사망함.

## 2016. 9. 13.

### ■ 北 두만강 범람·회령 강안동 주민 20% 사망·실종(연합뉴스)

- 북한 동북부 지역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두만강이 범람하면서 함경북도 회령시 강안동에서만 전체 주민의 20%에 해당하는 20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함.
- 김동남 자유북한국제네트워크 대표는 RFA에 “이번 홍수로 두만강 강물이 갑자기 불어나 회령시 강안동을 덮쳤다”며 “주민 200여 명이 실종 및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힘.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12일 태풍 ‘라이언록’으로 인한 폭우와 홍수로 인해 함경북도 일대에서 133명이 숨지고 395명이 실종됐다고 발표한 바 있음. 회령시 강안동을 비롯한 일부 북·중 접경 지역에는 접근이 불가능해 피해 집계가 이뤄지지 않아 향후 피해 규모는 늘어날 전망이다.

## 2016. 9. 15.

### ■ 北 홍수로 현재까지 138명 사망, 400여명 실종(연합뉴스)

- 북한에서 함경북도 지역의 대규모 홍수로 현재까지 138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실종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평양에 있는 유엔 상주조정관실을 인용해 15일 보도함.
- 유엔 평양 상주조정관실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과거에도 홍수 피해를 보았지만, 이번 홍수는 근래 들어 가장 심각하며 엄청난 손상을 입혔다”며 “현재까지 138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실종됐으며 가옥 2만채가 무너졌다”고 밝힘.
- 그러면서 “겨울이 다가오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앞으로 인명 과 재산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함.

## 2016. 9. 16.

### ■ 北 청소년들, 한국 EBS 영어 프로그램 선호(연합뉴스)

-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제작한 영어 프로그램이 북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함.



- 북한 내부에 외부정보를 유입시키는 한국의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RFA에 “요즘 북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 영어교육 동영상에 대한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한 북한 무역업자는 “외부정보를 유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자제품을 다루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원본 파일을 구입해서 USB에 대량 복제해 판다”며 “16GB짜리 이동식 저장장치(USB)는 (북한에서) 중국 돈 100위안 정도에 팔린다”고 말했다.

#### ■ **北매체, 홍수피해 현장 공개…마을 하나가 속대발(연합뉴스)**

- 매체들이 홍수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함경북도 지역의 피해 현장의 모습을 공개함.
- 북한 선전매체 ‘내나라’가 16일 인터넷에 게재한 사진을 보면 홍수가 마을 하나를 할퀴고 지나간 모습이 보임. 이에 따라 7~8채의 건물이 완파되거나 반파됐으며, 작은 건물 한 채는 거센 물살을 이기지 못한 듯 뒤로 넘어감.
- 한편, 세계보건기구(WHO) 등 유엔 소속 인도주의 지원기구 관계자 20명은 지난 6~9일 북한 당국 관계자들과 함께 수해 지역을 둘러봤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이날 보도함. WHO는 이달 초 수재민 1만 명이 석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의료구호장비 26개 세트를 현장에서 분배했으며, 대북 의료보건지원금 17만5천 달러(약 2억원)도 투입키로 함.

## 4. 외교국방

### 가. 북·미 관계

2016. 9. 10.

#### ■ **<北 핵실험> 미국인 60% “북핵은 중대 위협”…81% 제재 지지(연합뉴스)**

-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북핵 위협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미국 싱크탱크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가 북핵을 바라보는 미국인들의 시각에 대한 최신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함.
- CCGA는 9일(현지시간) ‘2016 미국의 외교 정책에 관한 국민의견 조사결과’를 근거로 “미국인 60%가 북핵을 미국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전함.
- 이 수치는 작년 조사 결과에 비해 5% 포인트 더 늘어난 것으로, 미국인들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국제 테러리즘(75%)에 이어 2번째로 큰 잠재 위협으로 보고 있음.

- 지난 6월 10일부터 27일까지 미 전역의 18세 이상 성인 2천6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오차범위는 질문에 따라  $\pm 2.2\%$  포인트부터  $\pm 3.5\%$  포인트 사이임.

2016. 9. 11.

■ **北 외무성, 美 오바마 대북 핵실험 규탄 성명 비난(연합뉴스)**

- 북한이 5차 핵실험에 따른 추가 대북제재 등의 중대 조치를 하겠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성명을 비난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1일 담화를 통해 “오바마가 직접 나서서 이번 핵탄두폭발시험에 대한 추가적인 중대조치들을 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며 “핵탄두 폭발시험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핵전쟁 위협과 체제소동에 대한 실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서 적들이 우리를 건드린다면 우리도 맞받아칠 준비가 되어있다는 초강경 의지의 과시”라고 주장함.
-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며 “추가 대북제재를 포함한 ‘중대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던 바 있음.

■ **〈北 핵실험〉 美의회 지도부·외교·군사위원 등 20여명 릴레이 北규탄성명(연합뉴스)**

- 북한의 5차 핵실험 강행에 대해 미국 정부는 물론 의회도 공화, 민주당 가릴 것 없이 초당적으로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
- 10일(현지시간) 미 의회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의장과 상·하원 외교위원장을 필두로 상·하원 외교·군사위 소속 의원 등 20여 명이 핵실험 이후 일제히 규탄 성명을 내고 강력한 대응 조치를 촉구함.
- 이들은 한국 등 동맹은 물론 전 세계에 중대한 위협인 북한의 이번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면서 ▲대북제재법의 철저한 이행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압박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신속배치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을 주문함.

■ **〈北 핵실험〉 NYT “북한, 미치기는커녕 너무 이성적”(연합뉴스)**

-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잇단 도발을 감행하는 배경에는 생존을 위한 이성적인 사고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은 미치기는커녕 너무 이성적이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 도발의 밑바탕에 깔린 원인을 분석함.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비이성적 태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지만, 정치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은 지극히 이성적인 국가”라는 답을 내놓고 있음.

- NYT는 선군정치를 토대로 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불규칙하고 때로는 실패도 했지만, 국제사회의 위기감 증폭과 자국 이익 실현 면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함.

2016. 9. 12.

■ **성김 美6자수석 방한…北도발에 강력대응 긴밀 협력(연합뉴스)**

- 미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2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한국과 다른 6자회담 파트너들,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과 함께 최근 도발에 충분히 강력한 대응을 도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함.
- 김 특별대표는 이날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직후 기자들에게 “북한은 또다시 자신들의 의무와 약속에 대해 노골적이고 무모한 무시를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힘.
- 김 특별대표는 한국을 찾기 전에는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일본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대북제재 방안을 협의했음.

2016. 9. 13.

■ **루 美재무, 北정책 바꾸는 게 제재 목표…핵보유 용납안돼(연합뉴스)**

-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수단을 계속 강구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이 밝힘. 또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루 장관은 못박음.
- 루 장관은 1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정책연구기관 미국외교협회(CFR)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은 매우 큰 도전 과제”라며 대북제재와 관련해 “우리(미국)는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정 측면에서의 수단을 강화할 것이고, 목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보유) 정책을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함.
-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TPP를 비롯한 무역협정에 대해 “불안과 분노”가 형성되는데 대해 루 장관은 “거시경제의 성장에 따라 노동자 가정과 중산층 가정에 그들의 삶이 더 향상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잘 확신시킬 능력이 없다면 무역이 (경제) 성장에 좋은지 나쁜지와는 무관하게 사람들은 (무역에 대해)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우려함.

■ **브룩스 사령관, 北핵실험 절대 수용못해…단계적 작전 수행할것(연합뉴스)**

-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군사령관은 13일 북한의 핵실험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단계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힘.

- 빈센트 사령관은 이날 오전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2대의 한반도 상공 전개 직후 오산기지에서 이순진 합참의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켰고 이는 우리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함.
- 미국은 B-1B를 시작으로 주요 전략무기를 잇달아 한반도에 전개해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일 계획임. 다음 달 중순 서해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진행되는 한미 연합 항모갑순단 훈련에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CVN-76)가 참가할 것으로 알려짐.

#### ■ 美 “흔들림없다” 확장억제 거듭 강조…‘핵무장·전술핵’ 선긋기(연합뉴스)

-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3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한국의 핵무장론이나 미군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 선을 그음.
-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의 결정을 거론하는 방식으로 분명한 거리를 둬. 대신 한미연합방위태세와 미군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거듭 강조, 확인함.
- 김 특별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지역내 동맹국들을 방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우리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분명히 재차 강조했다”면서 “여기(공약)에는 미국의 모든 방어능력이 보장하는 강력한 확장억제력이 포함된다”고 강조함.

#### ■ 대북압박 효과적, 문제는 北의지…한미, 대화론에 썩기(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강력한 대북 압박’에 한목소리를 내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화 병행론’에 썩기를 박음.
-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에 나서 “(문제는) 북한의 의도와 의지”라며 이런 인식을 나타냄.
- 김 특별대표는 ‘압박으로는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는 자성이 있다. 여러 대화체를 복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는 질문에 “북한은 진정한 대화에 관심을 보이기는 커녕, 전례 없는 수준의 도발을 감행했다”고 지적함.

2016. 9. 14.

#### ■ 北, 美 B-1B 전략폭격기 출격에 “경거망동 말라” 위협(연합뉴스)

- 북한은 14일 미국이 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를 한반도 상공으로 출격시킨 데 대해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위협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제놈(미국)들의 침략 야망을 합리화하는 구실로 써먹어 보려는 흉악한 속심으로부터 미제는 핵전략 폭격기들을 남조선 지역 상공에 계속 들이 밀면서 그 과정에 핵 선제 타격의 기회를 마련해보려 하고 있다”면서 그같이 주장 함.
- 이어 “미제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핵 항공모함을 비롯한 핵전략 수단들을 런이어(연이어) 투입하려 하고 있는 흥심도 바로 여기에 있다”면서 “분별을 잃고 날뛰는 미제 호전광들의 극단적인 도발적 망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는 각일각 폭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함.

2016. 9. 15.

■ **샤프 前 주한미군 사령관 “北, 통일 전엔 핵 포기 안할것”(연합뉴스)**

-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근 북한 핵실험 사태에 대해 “북한은 통일이 되기 전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샤프 전 사령관은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비공개로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 및 3당 원내대표와 전 주한미국대사 주한미군 사령관 간담회’에서 이같은 주장을 했다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전함.
- 샤프 전 사령관은 이같은 점을 고려해 북핵 대책을 생각해야 하며, 결국 김정은 정권의 자발적인 태도 변화가 아닌 강제적인 정권 교체를 통해서만 북핵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美전문가, 北 핵개발 몰두하며 수해지원 요청 이중행태(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으면서도 국제사회에 수해지원을 요청하는 행동이 이중적이라는 지적이 15일(현지시간) 제기됨.
- 군사전문가이자 워싱턴타임스 칼럼니스트인 빌 거츠는 이날 이 신문에 게재한 ‘북한의 핵 개발과 수해지원 요청’이라는 칼럼에서 “북한 유엔대표부 권정근 참사가 지난주 함북지역 수해현황을 설명하며 긴급지원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미국 대북지원 단체들에 발송했다”고 전함.
- 그는 “이들 단체는 대북지원이 결국 김정은의 장악력만 강화하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임.

## 나. 북·중 관계

2016. 9. 10.

### ■ <北 핵실험> “中, 안보리서 ‘6자회담 통한 대화 지지’ 언급”(연합뉴스)

- 중국이 9일(현지시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단호한 반대”를 표명하면서도 6자회담을 통한 대화 해법을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10일 외교 소식통에 의하면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미일의 소집 요청에 따라 현지시간 9일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중국 대표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북한이 비핵화 의무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힘.
- 중국 대표는 이어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지역 평화에 대한 위협이며 일방적인 안보 추구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뒤 “모든 당사국의 침착한 대응을 촉구하고 6자회담을 통한 대화를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소식통은 전함.

### ■ <北 핵실험> 中 언론 대서특필…‘국제사회 비난’ 부각(연합뉴스)

- 중국의 주요 언론들이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소식을 1면에 대서특필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난과 강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함.
-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과 환구시보(環球時報), 글로벌타임스 등은 10일 주말판에서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사실을 1면 톱기사로 게재하는 등 집중 보도함.
-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자국 정부의 반대 성명과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을 중심으로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을 보도했고 인민일보 해외판은 1면 하단에 지슈둥(賈秀東) 중국국제문제연구소 특별초빙 연구원이 쓴 왕하이러우(望海樓) 칼럼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경고함.

### ■ <北 핵실험> 中 관영언론, 북한을 질식하게 하는 독성 지녀(연합뉴스)

- 중국 관영 언론은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주기보다 오히려 질식하게 하는 독성을 갖고 있다고 경고함.
- 10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의 정치안전을 보장해주기보다 오히려 거꾸로 북한을 점차 질식하게 하는 독성을 갖고 있다고 밝힘.
- 신문은 동북아 정세가 복잡하게 돌아간다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배치 결정이 중국과 한미 간의 대치를 불렀고 이를 호기로 삼아 북한은 핵실험을 가속화했다고 지적함.

- 한국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미국의 사드배치에 동의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를 찾고 북한은 중·미·한국의 균열과 국제공조가 약화되는 틈을 타 핵실험을 가속화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는 모두 잘못된 생각이라며 이런 각자의 행동이 동북아 정세를 더욱 혼란하게 하고 한반도를 화약고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함.

### 2016. 9. 11.

#### ■ <北 핵실험> 中, 北대사 초치…“긴장고조 행위 중단하라”(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10일 북한의 제5차 핵실험과 관련,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초치해 강하게 항의한 사실이 확인됨.
- 중국 외교부는 이날 “장예쑤이(張業遂) 상무부부장이 지재룡 대사를 불러 북한이 재차 핵실험을 한 데 대한 중국의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같은 사실을 공개함.
- 앞서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핵실험 당일인 9일 브리핑에서 지 대사를 초치해 항의할 계획임을 시사했음.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 외교부가 북한 대사를 불러서 항의했느냐”는 질문에 “중국 외교부 책임자가 주중 북한대사관 책임자에게 항의할 것”이라고 답변함.

### 2016. 9. 12.

#### ■ 中 “北핵실험, 방사능 오염 없어…모니터링 계속”(연합뉴스)

- 중국 당국이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직후 긴급 대응체계에 돌입해 북·중 접경 등지에서 방사성 물질을 모니터링한 결과 방사능 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힘.
-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12일 중국 환경보호부를 인용, 9일부터 11일 까지 동북 변경 및 주변 지역의 방사능 모니터링을 한 결과 이상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고 인공 방사능 물질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보도함.
- 중국은 지난 1월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한 직후에도 제2급 긴급대응 체계에 돌입, 방사능 오염 발생 여부를 조사했으나 방사능 오염은 초래되지 않았다고 밝힘.

### 2016. 9. 13.

#### ■ 아사히신문 “北, 핵실험 中에 사전설명…中, 반대 입장 전해”(연합뉴스)

-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기 전 중국에 사전설명을 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북중관계에 정통한 당국 소식통을 인용, 13일 보도함.
- 아사히는 이날 베이징(北京)발 기사에서 “북한이 한미의 대북 ‘군사행동계획’에 대항하

- 고자 핵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을 중국 측에 직접 전달했다”며 “실험일시를 통보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국 측은 (핵실험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갖췄다”고 전함.
- 소식통은 “중국 지도부는 한미가 한반도에서 군사적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면서 북한에 대한 대응을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신문에 말함.

2016. 9. 15.

■ **中 왕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찬성...일방제재는 반대(연합뉴스)**

- 중국이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에는 찬성하지만 개별국가의 일방적 제재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함.
-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14일 기사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전화통화에 서 이같이 밝힘.
-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올린 발표문 형식의 통화내용에 따르면 왕 부장은 북한 핵실험에 반대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거듭 표명했으며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과 함께 한반도에서 발생한 새로운 변화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기를 원한다고 밝힘.

2016. 9. 16.

■ **美에도 수해구호 요청한 北, 정작 中에는 안 해(연합뉴스)**

- 사상 최악 수준의 수해피해를 겪고 있는 북한이 미국에까지 구호요청을 하면서도 정작 최대 우방인 중국에는 구호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16일 알려짐.
- 복수의 대북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중국 측에는 공식적인 수해 복구 지원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중국 중앙정부 역시 공식 요청이 없으면 지원에 나서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말함.
- 소식통들은 “북한이 미국까지 포함한 다른 여러 나라에는 구호를 요청하면서 중국에는 하지 않았다는 것은 중국에 상당한 불만이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다. 북·일 관계

2016. 9. 10.

■ **〈北 핵실험〉 日국회, 오는 14일 규탄 결의안 채택 추진(연합뉴스)**

- 일본 국회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한 것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이 10일 전함.

- 집권 지민당은 당 간부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짓밟은 것에 대해 엄중히 항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제1야당인 민주당은 “정부는 리더십을 발휘해 안보리에서 새로운 제재 결의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함.
- 이에 따라 여야 국회대책위원장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임시국회 이전인 14일 북한을 비난하는 중·참의원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하고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음.

2016. 9. 11.

■ **아베, 대북 독자제재강화 지시…자산동결·송금규제 강화 부상(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맞서 독자적으로 추가 제재 추가에 나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일본의 독자적 제재 강화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11일 밝힘.
-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이날 니가타(新潟)현 산조(三條)시 강연에서 아베 총리가 이런 지시를 내린 사실을 공개하고 “정부·여당이 확실하게 연대해서 대응하고 싶다고 말함.
- 그는 한국·미국·일본 3국 연대와 더불어 중국, 러시아에도 제재를 위한 협력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임.

2016. 9. 12.

■ **아베, 자위대 회의…北핵·미사일 전례없는 사태…용인못해(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2일 북한의 5차 핵실험 등과 관련해 “전례 없는 사태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함.
- 그는 이날 방위성에서 열린 자위대 고급간부회의에 참석해 훈시를 통해 “북한이 9개월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함.
- 한편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비교적 단기간에 핵무기 소형화, 탄두화 관련 기술을 습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2006년 첫 핵실험 이후 장기간이 지난 만큼 북한의 기술적 성숙도 예견된다”고 지적함. 또 “어쨌든 정부로서는 모든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갖고 경계 감시를 확실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임.

2016. 9. 13.

■ **방북 日이노키 의원 “北 ‘핵실험, 미국을 향한 것’이라고 얘기”(연합뉴스)**

- 5차 핵실험 외중에 북한을 방문한 안토니오 이노키 일본 참의원 의원은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핵실험은 일본이 아니라 미국을 향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발언을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북한에서 출발해 중국 베이징(北京)을 거쳐 13일 일본 도쿄(東京)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이노키 의원은 기자들에게 자신이 이달 10일 북한에서 리 부위원장과 회담했다면서 이같이 전함.
- 이노키 의원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9일 열린 리셉션에서 만났으며 대화 내용을 소개함.

라. 북·러 관계

2016. 9. 13.

■ **타스 “러, 김형중 주러대사 불러 핵실험 우려 표시”(연합뉴스)**

- 이고르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김형중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를 불러 최근 잇단 핵실험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우려를 표시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12일 (현지시간) 보도함.
- 러시아 외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모르굴로프 차관이 김 대사를 대화를 위해 청했으며 북한이 수행한 핵실험에 대한 러시아 측의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고 밝힘.
- 타스 통신은 지난 9일 북한의 5번째 지하 핵실험은 북한에서 한 것 중 가장 강력한 것이었다고 설명함.

2016. 9. 15.

■ **러, 새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참여 의사 밝혀(연합뉴스)**

- 러시아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응징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에 동참할 뜻을 밝힘.
-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한 러시아의 대응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 같은 입장을 표시함.
- 자하로바는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유엔 안보리가 지난 9일 긴급회의를 열고 언론 성명을 채택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성명에 따르면 모든 안보리 회원국들은 북한의 행동에

대해 유엔 헌장 41조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마련하는 데 신속히 착수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새로운 안보리 결의 채택을 의미한다”고 설명함.

##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6. 9. 10.

- <北 핵실험> 유럽, 유엔결의 위반 강력 규탄·평화 안보에 중대 위협(연합뉴스)

  - 유럽연합(EU)과 유럽 주요국은 9일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지역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한 목소리로 규탄함.
  - EU는 특히 더욱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를 시사했으며 독일 정부는 자국 주재 북한대사를 초치해 항의함.
  -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정책 고위대표는 올해 들어 두 번째 이뤄진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이날 성명을 내고 “유엔 안보리가 여러 차례 결의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 생산과 실험을 하지 말 것을 결정했으나 북한은 이번에 또다시 직접 이런 국제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번 5차 핵실험은 한반도 지역과 주변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함.
  
- <北 핵실험> 안보리 ‘유엔헌장 41조’ 이례적 언급 주목(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을 논의한 첫 회의 후 내 놓은 언론성명에서 ‘유엔 헌장 41조’를 명기한 것은 새로운 제재 조치를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됨.
  - 안보리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어 채택한 언론 성명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유엔헌장 41조 하에서 안보리 결의의 형태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작업을 신속히 착수할 것”이라고 밝힘.
  - 유엔헌장 41조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헌장 제7장에 들어가 있는 조문으로, 비(非)군사적 조치를 담고 있음.
  
- <北 핵실험> 하루만에 55개국 5개 기구 규탄 성명(연합뉴스)

  - 북한의 제5차 핵실험후 하루 사이에 총 60개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대북 규탄 성명을 냈다고 외교부가 10일 밝힘.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열린 긴급 북핵 대책회의에서 “상황의 엄중함으로 인해 한-미-일, 그리고 유럽의 정상들뿐 아니라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강력 규탄했다”며

“핵실험 이후 하루 만에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전세계 55개국, 5개 국제기구가 규탄 성명을 발신했다”고 소개함.

- 북한 핵실험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3대 다자기구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국제원자력기구(IAEA),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준비위원회가 모두 규탄 입장을 냈다고 외교부는 전함.

#### ■ <北 핵실험> CTBT준비위, 규탄 보고서 채택·심각한 우려(연합뉴스)

-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준비위원회는 9일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특별보고서를 채택하고 성명을 발표했다고 외교부가 10일 밝힘.
- CTBT 준비위는 9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한국 등의 요청으로 특별회의를 개최,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고 “핵실험이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함.
- CTBT준비위는 또 함께 발표한 의장성명에서 “북한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완전히 수용 불가능한 것”이라며 “이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힘.

#### ■ <北 핵실험> 불가리아 등 北 전통우방 동유럽국도 규탄 동참(연합뉴스)

-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으로 꼽히는 동유럽 국가들도 신속하게 북한의 5차 핵실험 비판에 동참함. 동유럽의 북한 우방인 불가리아, 루마니아, 폴란드 등은 9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함.
- 이 가운데 불가리아는 북한 외교관이 약 20명이나 주재, 유럽에서 최대 규모의 북한 공관이 있는 곳임.
- 불가리아 외교부는 이날 웹사이트에 ‘북한의 새로운 핵실험 실시 성명에 대한 불가리아 외교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올리고 “북한의 새로운 핵실험 소식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힘.

#### ■ <北 핵실험> 멕시코 “국제 평화·안보 위협 행위” 규탄(연합뉴스)

- 멕시코 정부가 9일(현지시간) 북한의 5차 핵실험 도발을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심각한 우려를 나타냄.
- 멕시코 정부는 이날 외교부 성명을 내 “이번 핵실험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핵확산금지조약(NPT) 규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이런 종류의 행위를 중지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맞서겠다는 북한의 결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함.

- 이어 “멕시코는 안보리의 관련 후속조치와 결정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2016. 9. 15.

■ **유엔서 미·중 대북제재안 의견조율…신속 추진 예상(연합뉴스)**

-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협의에 들어간 가운데 새 제재는 앞서 지난 3월의 제재 때보다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유엔에서 미국은 새로운 대북제재 내용을 담은 1차 의견서를 최근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유엔 관계자가 14일(현지시간) 말함.
- 아직 제재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양국이 대북제재의 범위와 강도를 놓고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는 의미임.

바. 군사 및 핵·미사일

2016. 9. 10.

■ **〈北 핵실험〉 中전문가, 北 이미 초보적 핵타격력 갖췄다(연합뉴스)**

- 중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20기 가량의 핵무기와 함께 초보적인 수준의 핵 타격 능력을 지닌 것으로 파악함.
- 텡쑤(騰迅)과기, 신랑(新浪)군사 등 중국 전문 매체들은 10일 북한이 전날 감행한 5차 핵실험과 과거 북한의 핵무기 개발 동향을 분석해 북한의 핵기술이 더이상 경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전함.
-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지 20여년 만에 실전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핵무기 개발에 성큼 다가선 것으로 보고 있음.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과정을 가장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을 것으로 파악됨.

■ **〈北 핵실험〉 美 북한연구기관에 핵실험 이틀전 사이버공격(연합뉴스)**

-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기 이틀 전인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 북한 군사문제를 비롯한 안보 분야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미국 연구기관에 사이버 공격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남.
-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CNS)는 이 연구기관에서 운영하는 위성사진 분석용 웹사이트 ‘위성사진 클라우드소싱 프로젝트’가 지난 7일 오후부터 분산서비스거부(DoS) 공격을 받고 있고 아직 정상적인 사이트 사용이 어려운 상태라고

10일 밝힘.

- 지난달 말 미국 전산보안업체 클라우드스트라이크는 최대 5곳의 정책연구기관들이 러시아 연방보안국(FSB)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해커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함.

2016. 9. 11.

■ <北 핵실험> 美본토공격 우려 증중...머지않아 시카고 공격가능(연합뉴스)

-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은 5차 핵실험 후 미국에서 미 본토가 공격받는 시나리오가 부각되고 있음.
- 북한의 빠른 핵·미사일 전력개선으로 미뤄 이런 무기가 미국을 향하는 시점은 그리 멀지 않을 것 같고, 따라서 더이상 도외시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임.
-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면서 “불량정권은 멀지 않아 미국 시카고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질 것”이라고 말함.

■ 北 다음 도발 수순은...美본토 겨냥 ICBM 시험발사할 듯(연합뉴스)

-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은 다음 수순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핵능력 고도화를 목표로 한 전략적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이 점쳐짐.
- ‘핵탄두 폭발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지난 9일 발표한 북한은 핵탄두를 탑재한 장거리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려고 할 공산이 크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11일 전망함.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정권수립일인 9월 9일에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만큼 노동당 창건기념일인 10월 10일이나 미국 대선일인 11월 8일에 핵무기 고도화의 완성판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에 강력한 임팩트를 주는 ICBM 시험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함.

2016. 9. 12.

■ [단독] 소식통, 北 풍계리핵실험장 3번 갱도서도 핵실험 준비 끝나(연합뉴스)

-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도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짐.
- 한미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지난 9일 ‘핵탄두 폭발시험’ 사실을 발표하면서 핵 무력의

추가 강화조치를 언급한 것에 대해 연내 추가 핵실험을 예고한 것으로 평가함.

- 북수의 정부 소식통은 12일 “북한이 풍계리 1~3번 갱도 중 그간 한 차례도 핵실험을 하지 않았던 3번 갱도에서도 언제든 핵실험을 감행할 준비를 마친 상황이 포착됐다”면서 “한미 정보당국은 3번 갱도에서 추가적인 핵실험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힘.

### 2016. 9. 13.

#### ■ ‘北영변 방문’ 美해커 박사 “北, 매년 7개씩 핵무기 제작가능”(연합뉴스)

- 북한이 이제 해마다 7개 가량의 핵무기를 제조할 만한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의 원자력기술 전문가 지그프리트 헤커 박사가 우려함.
-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교수 겸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 선임 연구원인 헤커 박사는 2010년 북한 평안북도 영변의 핵무기 연구단지를 방문해 우리나라 농축에 쓰이는 원심분리기를 직접 목격함.
- 헤커 박사는 12일(현지시간) 북한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현재 300~400kg인 고농축우라늄 보유분에, 핵무기 6개 정도 분량에 해당하는 150kg 가량의 고농축우라늄을 추가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예측함.

### 2016. 9. 14.

#### ■ ‘38노스’ 조엘 위트 “북한, 최소 3회 ‘즉시 핵실험’ 가능”(연합뉴스)

- 북한이 이렇다할 준비 절차 없이 진행되는 ‘즉시 핵실험’을 적어도 3번 더 할 수 있으며, 북한에서 첫 핵실험에 나섰던 오는 10월 9일이 다음 핵실험 날짜가 될 수도 있다고 조엘 위트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한미연구소 연구원이 주장함.
- 북한전문매체 ‘38노스’를 운영하는 위트 연구원은 13일(이하 현지시간)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촬영한 위성사진들을 통해 북한이 추가 핵실험 준비를 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그는 또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한 지 10주년이 되는 오는 10월 9일을 추가 핵실험 시점으로 선택할 여지도 있다고 덧붙임.
- 위트 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만큼 현 시점에서(북핵 문제와 관련된) 상황을 바꿀 만한 일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다음 대통령의 임기 중 첫 100일 동안이(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차기 미국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서 성과를 내려면 취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함.

■ **中 관영언론, 北 핵탄두 기술 수준에 '의문' 제기(연합뉴스)**

- 중국 관영언론이 자국 전문가들을 동원, 북한이 주장하는 핵탄두 소형화 기술 수준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섬.
-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14일 “북한 핵무기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제목의 1면 톱기사에서 “북한이 실전투입이 가능한 핵무기를 개발했는지, 핵탄두가 미사일에 장착할 수준으로 소형화됐는지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자국 전문가들의 분석을 자세히 전함.
- 북한은 지난 9일 제5차 핵실험 4시간 만에 핵무기연구소 성명을 통해 “핵폭발 시험을 통해 전략탄도 로켓들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 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했다”고 발표함.

2016. 9. 16.

■ **北 노동미사일 정확도 높아졌다…1천km 비행·오차 1km 이내(연합뉴스)**

- 북한의 노동미사일(최대사거리 1천300km)이 목표지점에서 발생하는 오차반경이 줄어드는 등 정확도가 향상된 것으로 분석됨.
- 정부의 한 소식통은 16일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노동미사일 추정 탄도미사일 3발은 모두 1천km를 비행해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내 해상에 떨어졌는데 3발의 낙하지점이 1km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 3발 모두가 반경 1km 내에 떨어졌다는 것임. 이는 노동미사일이 1천km를 비행할 때 발생하는 오차반경인 ‘원형공산오차’(CEP)가 최소 2km, 최대 3~4km라는 분석치보다 훨씬 줄어든 것임.



## II 동북아정세

### 1. 한반도정세

#### ■ 개요

| 분류   | 일자                                   | 한국  | 미국  |
|--|--------------------------------------|---|---|
| 한미 관계                                      | 9.10                                 | <北 핵실험> 한미, 방사성 핵종 포집 나섰다(연합뉴스)           |   |
|  |                                      | 한미, 北핵실험 대응 새 대북제재 조율 착수...제재리스트 확대(연합뉴스) |   |
|  |                                      | 한민구, 美·日 국방장관과 통화...대북 압박 공조 강화(연합뉴스)     |   |
|  | 9.12                                 | 한미 6자수석 서울서 대북제재 조율...전날 미일 이어 연쇄회담(연합뉴스) |   |
|  |                                      |   | 주한미군 "괘 배치 전략폭격기, 내일 한국 출동 예정"(연합뉴스)      |
|  | 9.13                                 | 한미 6자수석, 모든수단으로 北압박...美 안보공약 흔들림없어(연합뉴스)  |   |
| 한미, 北도발억제책 논의...美 "北 핵무기 사용시 압도적 대응"(연합뉴스) |                                      |   |   |
| 9.14                                       | 한미일 외교장관, 18일 뉴욕서 새 대북제재 방안 협의(연합뉴스) |   |   |
|  | 韓, 한미 국방 회의 때 핵무기 공동관리 구상 거론(연합뉴스)   |   |   |
| 분류   | 일자                                   | 한국  | 중국  |
| 한중 관계                                      | 9.10                                 | 韓中 6자회담 수석대표 통화...中, 北의 핵보유 묵인안해(연합뉴스)    |   |
|  |                                      | <北 핵실험> 분수령 한중관계, 전화위복 계기 맞나(연합뉴스)        |   |
|  | 9/14                                 |   | 中왕이, 새 안보리결의로 北에 더 엄격한 조치...핵개발 막아야(연합뉴스) |
| 분류   | 일자                                   | 한국  | 일본  |
| 한일 관계                                      | 9.11                                 |   | 日 방위상, 韓 국방에 군사정보보호협정 조기 체결 요청(연합뉴스)      |

|           |           |  |            |
|-----------|-----------|--|------------|
|           | 9.12      | 국방부 “한일 군사정보공유협정, 안보적 관점서 필요”(연합뉴스)    |            |
|           | 9.16      | 한일외교장관 18일 뉴욕서 회담…군사정보협정 논의 주목(연합뉴스)   |            |
| <b>분류</b> | <b>일자</b> | <b>한국</b>                              | <b>러시아</b> |
| 한러 관계     | 9.13      | 윤병세, 오늘밤 中·러 외교장관과 통화…北핵실험 대응 협의(연합뉴스) |            |
|           | 9.14      | 윤병세, 中·러 외교장관과 통화…北핵실험 대응방향 논의(연합뉴스)   |            |

## 2. 주변국정세

### ■ 개요

| 분류    | 일자   | 미국  | 중국                                  |
|-------|------|---|-------------------------------------|
| 미중 관계 | 9.10 | <北 핵실험> 美국방 “대북압박 강화·中 역할 중요” 북중 동시압박(연합뉴스) |                                     |
|       | 9.11 | <北 핵실험> 잇따르는 대북제재 회의론…“中 때문에 한계”(연합뉴스)      |                                     |
|       | 9.12 |   | 中관영언론 “北핵실험 ‘중국책임론’은 ‘억지’ 주장(연합뉴스)  |
|       | 9.14 |   | 中, 美 폭격기 한반도 투입에 “상대방 자 극말아야”(연합뉴스) |
|       | 9.15 | 미·중, 호주내 정치기부금 충돌 “제도 바꿔야” vs “간섭 마라”(연합뉴스) |                                     |

| 분류    | 일자   | 미국  | 일본                                    |
|-------|------|---|---------------------------------------|
| 미일 관계 | 9.11 | <北 핵실험> 6자회담 미일대표, 추가 독자제재 추진…가장 강한조치(연합뉴스) |                                       |
|       | 9.13 |   | ‘북핵 정국’에서 日방위상 방미…북한 위협이 시급한 안건(연합뉴스) |
|       | 9.14 | 美폭격기·자위대전투기 日규슈서 연합훈련…북핵 견제 시위(연합뉴스)        |                                       |
|       | 9.16 | 美日국방, 北 중대한 위협…동맹통해 대북 억지력 강화(연합뉴스)         |                                       |

| 분류    | 일자 | 미국 | 러시아 |
|-------|----|----|-----|
| 미러 관계 |    |    |     |

| 분류    | 일자   | 중국                                 | 일본                                     |
|-------|------|------------------------------------|--|
| 중일 관계 | 9.11 |                                    | 일본, 대북제재 ‘구멍’ 中에 주목…이번 에도 중국이 열쇠(연합뉴스) |
|       |      | 중국 해경선, 중일 정상회담 후 ‘센카쿠’ 첫 순찰(연합뉴스) |  |

|      |   |  |
|------|---|--|
| 9.12 | 日 국유화 4주년 센카쿠...中 168일간 주변해역 순찰 '갈등' 여전(연합뉴스) |  |
| 9.14 | 중일 당국자 전화회담...북 핵실험 용인못해·제재 추진(연합뉴스)          |  |
| 9.15 | 中日 외교장관 통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연대 확인(연합뉴스)          |  |

| 분류    | 일자   | 중국  | 러시아                                      |
|-------|------|---|--|
| 중러 관계 | 9.10 |   | <北 핵실험> 러 외무부 “中·러, 대북 추가제재 자제 촉구”(연합뉴스) |
|       | 9.11 | 중·러, 남중국해 대규모 합동훈련...美 서태평양서 맞붙(연합뉴스)     |  |
|       | 9.12 | 러·중, 남중국해서 대규모 해상 연합훈련 개시...군사공조 과시(연합뉴스) |  |
|       | 9.15 | 시진핑, 푸틴 측근에 “중·러 안보협력 시 급성 커져”(연합뉴스)      |  |

| 분류    | 일자   | 일본                                     | 러시아                                   |
|-------|------|--|---------------------------------------|
| 일러 관계 | 9.12 | 아베, 북핵대응 러일과 공조해야...중일 외교장관 통화못해(연합뉴스) |                                       |
|       | 9.16 |  | 푸틴, 12월 방일 때 피폭 히로시마나가 사키 찾을 수도(연합뉴스) |

## ■ 주간 동향

### 1. 한반도정세

#### 가. 한·미 관계

2016. 9. 10.

##### ■ <北 핵실험> 한미, 방사성 핵종 포집 나섰다(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의 군과 정보당국이 북한의 제5차 핵실험으로 누출됐을 수 있는 방사성 핵종 탐지 작업에 착수함.
- 정부의 한 관계자는 10일 “해군과 공군이 해상과 공중의 대기에서 방사성 핵종을 탐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힘.
- 앞서 한미는 폭발위력이 강해진 3차(6~7kt), 4차(6kt) 핵실험 때도 방사성 핵종 탐지작업에 나섰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 특히 3차는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됐고, 4차 때는 북한이 수소탄 시험이라고 발표해 이를 검증하기 위한 탐지에 나섰으나 실패했음.

##### ■ 한미, 北핵실험 대응 새 대북제재 조율 착수...제재리스트 확대(연합뉴스)

- 한미 외교 당국은 제5차 핵실험을 한 북한을 제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들어갈 내용을 조율하기 시작한 것으로 10일 전해짐.
- 정부의 한 당국자는 10일 “외교부 차원에서 마련한 안을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로 보냈으며, 그것을 토대로 미국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함.
- 안보리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어 채택한 언론 성명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유엔헌장 41조 하에서 안보리 결의의 형태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작업에 신속히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 한민구, 美·日 국방장관과 통화...대북압박 공조 강화(연합뉴스)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미국 국방장관, 일본 방위상과 잇달아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압박 공조를 강화하기로 함.
- 국방부는 10일 “한 장관이 어제 오후 10시 30분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전화 대담을 통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한미동맹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힘.

- 류제승 국방정책실장, 켈리 맥사맨 미 국방부 동아태차관보 대리, 마에다 사토시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은 이날 오전 한미일 정보공유 화상회의(VCT)를 열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책을 협의함.
-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은 ‘흔들림 없고 철통 같은 한국과 일본 방어를 위한 동맹 공약을 재확인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재래식 핵·미사일방어능력을 포함한 미국의 총합적 군사력을 통해 보장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함.

2016. 9. 12.

■ **한미 6자수석 서울서 대북제재 조율·전날 미일 이어 연쇄회동(연합뉴스)**

- 한미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12~13일 서울에서 회동,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추가제재 방안을 집중 협의함.
- 미측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2일 오후 방한할 예정이며, 방한에 앞서 도쿄를 방문해 전날 일본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만나 대북제재 방안을 협의함.
- 김 특별대표는 12일 서울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찬을 겸한 협의를 하고, 13일 오전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 이어 공동 회견을 할 것으로 전해짐.
-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미 정상과 외교장관, 6자회담 수석대표간 전화협의를 각각 이뤄졌지만, 양국의 고위급 인사가 대면 협의를 하는 것은 처음임.
- 정부 당국자는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 대해 “당연히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추가제재는 물론 양자 차원의 독자제재, 글로벌(국제사회) 차원의 대북 압박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함.

■ **주한미군 “괌 배치 전략폭격기, 내일 한국 출동 예정”(연합뉴스)**

- 미군이 괌에 배치한 전략폭격기 B-1B가 13일 한반도에 출동함. 주한미군은 12일 “오늘 연기됐던 미군의 전략폭격기 전개는 내일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힘.
- 미국은 당초 이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한반도에 전개할 예정이었지만 기상악화를 이유로 전격적으로 연기함.
- 미국은 13일 오전 B-1B 2대를 경기도 오산기지 상공으로 투입해 대북 ‘무력시위’에 나설 것으로 알려짐.

2016. 9. 13.

■ **한미 6자수석, 모든수단으로 北압박…美, 안보공약 흔들림없어(연합뉴스)**

- 한미는 13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북한을 압박하기로 함.
-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회동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힘.
- 김 특별대표는 “어제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장시간 전화통화를 했고, 오늘 오후에는 러시아측 수석대표인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차관과 대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함.

■ **한미, 北도발억제책 논의…美 “北, 핵무기 사용시 압도적 대응”(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의 국방 당국이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방안에 대해 논의함.
- 한미는 12~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1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 등 북한의 위험한 도발은 한미동맹과 지역 및 범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국방부가 전함.
- 양국은 또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며 북한에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위와 수사를 중단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함.
- 회의에는 한국 측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미국 측 에이브러햄 덴마크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일레인 번 핵·미사일방어 부차관보가 대표로 나섰고 여승배 외교부 북미국장 과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외교당국자들도 참석함.

2016. 9. 14.

■ **한미일 외교장관, 18일 뉴욕서 새 대북제재 방안 협의(연합뉴스)**

-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71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18일(현지시간) 회담을 하고 북한의 5차 핵실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외교부가 14일 밝힘.
- 회담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참석함.
- 외교부는 “전례 없이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담에서는 안보리 추가 제재

결의, 우방국의 독자적 제재,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 등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북한의 5차 핵실험 대응을 위한 한미일 고위급 외교협의  
- 제71차 유엔총회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개최 -】**

1. 윤병세 외교부장은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71차 유엔총회 참석 계기에 「존 케리(John Kerry)」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 일본 외무대신과 9.18.(일, 뉴욕 현지시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2.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전례 없이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개최되는 금번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안보리 추가 제재 결의, 우방국의 독자적 제재,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 등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 금번 3국 외교장관회담은 유엔총회 고위급 세션에 참석하는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뉴욕에서 갖는 첫 번째 주요일정으로서 북한의 5차 핵실험이라는 상황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3국의 공통 인식을 반영하는 것임.
3. 금번 회담에서 윤 장관은 미·일 양측과 안보리의 강력한 추가 제재 결의가 최대한 신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견인하는 노력을 펼치는 한편, 총회 기조연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우호국 외교장관회의 등 안보 관련 주요 고위급 세션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최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 CTBT는 금년에 채택된 지 20주년을 맞이하는바, 매2년마다 유엔총회 계기에 개최되는 금년도 회의에서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이 핵심이슈로 다루어질 예정임.
4. 금번 회담은 핵실험 직후부터 지속된 정상, 외교장관, 6자회담 수석대표 등 각급 채널에서의 긴밀한 3국 공조 모멘텀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한·미·일 3국이 193개 유엔회원국이 집결한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핵야욕을 꺾기 위한 「국제사회 對 북한」의 구도를 보다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5. 한편, 윤 장관은 난민, 테러/폭력적 극단주의, 인권, 개발협력, 전염병,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도전 해결을 위한 우리의 기여 방안을 설명하고, 향후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3국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끝.



■ **韓, 한미 국방 회의 때 핵무기 공동관리 구상 거론(연합뉴스)**

- 한국 정부가 핵무기를 들여와 한미 양국이 공동 관리하는 방안을 올해 미국과 정례 방위협 의에서 언급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한미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14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올해 5월 9~1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때 한국 측은 올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핵무장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거론하고서 핵무기 공동관리 구상을 꺼냄.
- 아사히는 당시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핵무장론이라는 입장을 취하지 않지만, 핵무기 공동관 리를 실현하면 국내의 핵무장론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다고 소개함.

**나. 한·중 관계**

2016. 9. 10.

■ **韓中 6자회담 수석대표 통화…中, 北의 핵보유 묵인안해(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10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함.
- 지난 9일의 5차 북한 핵실험 이후 서울과 베이징(北京) 사이의 고위급 외교 당국자간 소통이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임.
-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차관급)은 이날 저녁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전화로 협의를 진행했다고 외교부는 밝힘.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통화】**

1.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9.10(토) 저녁 우다웨이(Wu Dawei)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유선 협의를 갖고, 9.9(금) 북한의 5차 핵실험 관련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 김 본부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충의를 무시하고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중대한 안보리 제재 결의 등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 Wu 대표는 중국측이 외교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고,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안정 수호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언급하였다.
2. 양측은 향후 대응 방향을 포함, 북핵 문제 관련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와 관련,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간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

■ <北 핵실험> 분수령 한중관계, 전화위복 계기 맞나(연합뉴스)

-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분수령을 맞던 한중관계가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북핵 공조에 대한 교집합 영역을 키우고 있음.
- 중국은 9일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그간 해빙 조짐이 일던 북중관계를 다시 냉각 국면으로 되돌리는 것과 맞물려 사드 배치로 멀어지던 한국과의 관계를 다시 재조정하는 문제를 내밀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하지만 북한 핵실험이 중국의 기존 안보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꿀만한 사안은 아닌 만큼 사드 배치 반대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한국에 대한 비공식적인 보복조치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옴.

2016. 9. 14.

■ <중왕이, 새 안보리결의로 北에 더 엄격한 조치·핵개발 막아야(연합뉴스)>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 “새로운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를 채택해 북한에 더욱 엄격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힘.
- 왕 부장은 13일 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외교부가 14일 전함.
- 왕 부장과 윤 장관은 이날 1시간10분 가량의 통화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둘러싼 현재의 상황에 대해 평가를 교환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함.

【윤병세 외교장관, 北 5차 핵실험 관련, 왕이(Wang Yi) 中 외교부장과 통화】

1. 윤병세 장관은 2016.9.13.(화) 22:00~23:10간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통화를 갖고, 북한의 5차 핵실험 관련,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하였다.
2. 윤 장관은 금번 북한의 핵실험이 강도 및 주기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도발행위라고 하고, 질적으로 달라진 북한의 위협에 대해 국제사회도 다른 대응을 해야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윤 장관은 북한이 노골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유엔과 안보리의 권위가 훼손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5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안보리 언론성명에 따라 강력한 제재 결의를 신속하게 도출하여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높은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추가도발을 억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윤 장관은 중국 고위인사들의 확고한 북핵불용 입장과 중국 외교부의 북한 핵실험에 대한 단호한 반대 입장 표명을 평가하고, 이러한 한·중 양국의 공동 입장이 유엔 안보리의 신규 제재결의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양국의 유엔대표부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3. 왕 부장은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안보리 제재결의를 채택하여 북한에 대해 더욱 엄격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아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하였다.

○ 또한, 왕 부장은 중국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준수하는 등 의무를 이행할 것이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반대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언급하였다.

4. 양측은 향후 대응 방향을 포함, 북핵 문제 관련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각급에서 지속해 나가기로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간 후속 협의를 갖기로 하였다.

5. 한편, 북핵 관련 협의 후 윤 장관과 왕이 부장은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양측의 기본 입장을 간략히 교환하고, 이와 관련된 소통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

## 다. 한·일 관계

2016. 9. 11.

### ■ 日 방위상, 韓 국방에 군사정보보호협정 조기 체결 요청(연합뉴스)

-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일본 방위상이 한국에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조기 체결을 요청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1일 보도함.
- 니혼게이지이신문(닛케이)은 이나다 방위상이 지난 10일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과 전화 통화에서 방위기밀 공유에 필요한 이 협정의 조기 체결을 요청했다고 전함.
- 한 장관과 이나다 방위상은 전날 통화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함.

2016. 9. 12.

### ■ 국방부 “한일 군사정보공유협정, 안보적 관점에서 필요”(연합뉴스)

- 국방부는 12일 한일 군 당국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안보적 관점에서 필요하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할 뜻을 시사함.
-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GSOMIA가) 안보적 측면에서는 필요한 측면이 있다"며 "(체결을 위해서는) 국민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함.
- 문 대변인은 "(GSOMIA와 관련해) 외교적 채널과 군사당국간 접촉을 계기로 일본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현재 한일간 협정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에 대해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있다"고 설명함.

2016. 9. 16.

■ **한일외교장관 18일 뉴욕서 회담...군사정보협정 논의 주목(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이 1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 방안을 조율함.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는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과 회담한다고 외교부가 16일 밝혔.
- 회담에서 두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북한의 제5차 핵실험(9월 9일)에 대한 제재 등 대북 압박 방안을 집중적으로 조율할 것으로 알려짐.

라. 한·러 관계

2016. 9. 13.

■ **윤병세, 오늘밤 中·러 외교장관과 통화...北핵실험 대응 협의(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3일 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각각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5차 핵실험 대응 방안을 협의함.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통화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함.
- 조 대변인은 이어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제재 결의를 신속하게 채택하는 문제에 대해 중점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여러가지 국제적인 압박 제고 차원에서 종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함.

2016. 9. 14.

■ **윤병세, 中·러 외교장관과 통화…北핵실험 대응방향 논의(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3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각각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함.
- 한국 외교부는 이날 윤 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의 전화 통화 뒤 내용은 보도자료에서 “윤 장관이 이번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지난 10년간 5차례의 핵실험 중 가장 강력하고 고도화된 것임을 설명하고 지금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지 못하면 국제사회 전체가 후회하게 될 것임을 설명했다”고 전함.
- 러시아 외무부도 이날 한·러 외무장관 회담 후 내용은 보도문에서 “양측이 유엔 안보리의 결의들을 훼손한 북한의 위험한 행동에 공동된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하면서 동시에 “러시아는 한반도 핵문제를 정치·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힘.

【**윤병세 외교장관, 북한의 5차 핵실험 대응 관련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

1. 윤병세 외교장관은 금 9.13(화) 21:00-21:25간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금번 북한의 5차 핵실험 관련 평가 및 향후 대응 방안 등에 관해 협의하였다.
2. 윤 장관은 제2차 동방경제포럼(9.2-3, 블라디보스톡)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우리측 대표단에 대한 푸틴 대통령 및 러시아 정부의 각별한 환대에 감사를 표하였다. 라브로프 장관도 박 대통령께서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3. 윤 장관은 금번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지난 10년간 5차례의 핵실험 중 가장 강력하고 고도화된 것임을 설명한 후, 최근 EAS 정상회의에서 우리측이 강조한 바 있듯이 지금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지 못한다면 국제사회 전체가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 북한이 유엔과 안보리의 권위를 무시하고 보란듯이 핵 실험을 감행한데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함으로써 추가 도발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 이와 관련, 윤 장관은 과거 어느 때 보다 엄중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상응하는 대응이 필요하며,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신속히 채택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지난 수십 년간 한반도와 동북아에 긴장을 조성한 장본인은 북한이며, 우리가 취하는 조치는 자위를 위한 방어적인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4.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우려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있으며 북한의

모험주의적 행동을 규탄한다고 하고, 북한이 의도적·공개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지속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안보리 신규 결의안 채택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 아울러, 라브로프 장관은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공동의 행동을 취할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하고, 다양한 외교적 해결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자고 하였다.

5. 양 장관은 북핵 문제에 대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 조속한 시일 내에 한-러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갖기로 하였다. 끝.

## 2. 주변국정세

### 가. 미·중 관계

2016. 9. 10.

#### ■ <北 핵실험> 미국방 “대북압박 강화·中역할 중요” 북중 동시압박(연합뉴스)

-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미국 국방부가 “또다른 파렴치한 도발”이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함.
- 미 국방부의 피터 쿡 대변인은 9일(이하 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감행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대한 또 다른 파렴치한 위반 행위이자,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물론 아태 지역의 안정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중대 도발 행위”라고 규탄함.
- 쿡 대변인은 현재 노르웨이를 방문 중인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동맹국들과 계속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임.

2016. 9. 11.

#### ■ <北 핵실험> 잇따르는 대북제재 회의론…“中 때문에 한계”(연합뉴스)

-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는 ‘추가 대북제재’로 대응하기로 일단 가닥을 잡았지만, 제재에는 더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한계론’이 잇따르고 있음.
- 미국 언론들의 이 같은 논조에는 대북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으면서도 전통적인 북한과의 우호 관계 때문에 ‘역할’에 미온적인 중국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음.
- 이들 언론은 공통적으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 위협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제재를 대체할 해법에서는 엇갈린 견해를 노출함.

2016. 9. 12.

■ **中관영언론 “北핵실험 ‘중국책임론’은 ‘역지’” 주장(연합뉴스)**

- 중국 관영 언론이 북한의 제5차 핵실험과 관련, ‘중국 책임론’을 반박하고 나섰다. 동시에 북한에도 핵문제에 전쟁이 발생한다면 가장 후회하게 되는 것은 북한이 될 것이라고 경고함.
-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중국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 것을 거론하며 12일 사설에서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 중국의 책임론을 적나라하게 주장한 것”이라며 이는 역지이자 궤변이라고 지적함.
- 중국 인민일보(人民日報) 해외판인 인터넷판인 해외망은 12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미국, 중국 등 대국의 대결구도 속에서 무모한 도박을 시도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북한을 향해 “이런 도박을 하면 할수록 미국의 판으로 끌려들어가는 셈이 된다”고 지적함.

2016. 9. 14.

■ **中, 美 폭격기 한반도 투입에 “상대방 자극말이야”(연합뉴스)**

- 중국은 미국이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대응해 13일 장거리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투입한 데 대해 “상대방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냄.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이같은 조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요구받고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며 “현 정세 아래에서 유관 당사국이 이성과 자제를 유지함으로써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지역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 그는 이어 “지역 정세의 긴장 고조와 상호 자극이란 이같은 악순환은 그 누구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2016. 9. 15.

■ **미·중, 호주내 정치기부금 충돌 “제도 바꿔야” vs “간섭 마라”(연합뉴스)**

- 남중국해 영유권 등을 둘러싸고 갈등 중인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는 중국이 호주 정치권에 기부금을 제공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임.
- 호주에서는 최근 연방 상원의 유력 야당의원인 샘 다스티아리(33)가 중국계 인사나 단체로부터 각종 금전적 지원을 받은 대가로 중국의 정치적 입장을 지지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바 있음.

- 이번 신경전은 호주 주재 미국대사가 먼저 중국을 염두에 두고 호주 정부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중국이 이에 강력하게 반박하는 식으로 이뤄짐.

## 나. 미·일 관계

2016. 9. 11.

### ■ <北 핵실험> 6자회담 미일대표, 추가-독자제재 추진...가장 강한조치(연합뉴스)

- 미국과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합의함.
- 북핵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추가 제재를 위해 협력할 것이며 각각 독자제재 등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11일 말함.
-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전날부터 일본을 방문 중인 성김 특별대표는 11일 6자회담 일본 수석대표인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도쿄에서 회담한 후 북한에 “최대한 강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양국이 연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힘.

2016. 9. 13.

### ■ ‘북핵 정국’에서 日방위상 방미...북한 위협이 시급한 안건(연합뉴스)

- 북한 핵실험을 응징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일본 방위상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미-일간 군사협력이 강화될지 관심을 끄.
- 미국의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일본 방위상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15일(현지시간)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미국 관료를 인용해 12일 보도함.
-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현 기노완 시에 있는 미군 기지를 현 내에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과 지방정부의 저항에 부딪혀 진척되지 않고 있음.

2016. 9. 14.

### ■ 美폭격기·자위대전투기 日규슈서 연합훈련...북핵 견제 시위(연합뉴스)

- 5차 핵실험으로 북한에 의한 안보 위기감이 커진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13일 전투기를



- 동원해 한반도와 인접한 규슈(九州) 일대에서 연합훈련을 벌임.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미군 전략폭격기와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이날 규슈 주변의 훈련 공역(空域)에서 연합훈련을 벌였다고 정례기자회견에서 밝힘.
  - 스가 관방장관은 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어디까지나 일미 공동대처 능력 및 부대의 전투기술 향상을 꾀하기 위해 미국 공군 전략폭격기가 우리나라(일본) 주변을 비행하는 기회를 포착해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함.

2016. 9. 16.

■ **美日국방, 北 중대한 위협…동맹통해 대북 억지력 강화(연합뉴스)**

- 미국을 방문 중인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일본 방위상은 16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회담하고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 미사일 발사가 중대한 위협인 만큼 양국 방위 당국 간 긴밀히 공조해 나간다는데 의견을 모음.
- NHK에 따르면 두 사람은 미 국방부에서 열린 회담에서 대북 공조를 위해 방위 당국간 긴밀한 정보 공유 및 미일 동맹에 의한 억지력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함.
- 이나다 방위상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전례없을 정도로 미일동맹이 강화됐으며, 매우 강한 유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회담이었다”며 “일본은 세계 유일의 피폭국으로 핵 없는 세계를 지향하지만, 현실을 생각하면 핵의 억제력도 중요하다”고 말함.

**다. 미·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중·일 관계**

2016. 9. 11.

■ **일본, 대북제재 ‘구멍’ 중에 주목…이번에도 중국이 열쇠(연합뉴스)**

-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맞서 국제 사회가 제재를 모색하는 가운데 일본은 그간 북한에 빠져나갈 구멍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은 중국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음.
- 일본 언론은 중국이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거나 외화별이 터전을 제공한 것 등에 주목하며 대북제재에 관한 중국의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있음.

- 요미우리(讀賣)신문은 북한이 국제 사회의 제재 망을 빠져나가 핵과 미사일 기술을 비약적으로 향상한 것 때문에 감시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것이 지적되고 있다며 강력한 제재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인지는 “이번에도 중국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11일 보도함.

#### ■ 중국 해경선, 중일 정상회담 후 ‘셴카쿠’ 첫 순찰(연합뉴스)

- 중국이 11일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지역인 셴카쿠(尖閣·중국어명 다포위다오<釣魚島>) 열도 해역에서 또다시 순찰 활동을 벌임.
-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국가해양국 발표를 인용, 중국 해경선 2401, 2337, 2102, 31101호 등 4척으로 구성된 편대가 11일 ‘다오위다오’ 해역에서 순찰활동을 했다고 보도함.
-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을 놓고 갈등을 벌이는 셴카쿠는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 섬이 자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며 인근 해역에 대한 순찰을 정기적으로 지속해 오고 있음.

2016. 9. 12.

#### ■ 日 국유화 4주년 셴카쿠…中 168일간 주변해역 순찰 ‘갈등’ 여전(연합뉴스)

- 일본이 셴카쿠(尖閣·중국어명 다포위다오<釣魚島>) 열도 국유화 선포 4주년을 맞은 지난 11일 중국 해경선이 순찰 활동을 벌인 것을 두고 양국이 서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등 마찰이 계속되고 있음.
- 12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셴카쿠 열도 국유화 4주년을 맞은 전날 중국 해경선 4척으로 구성된 편대가 셴카쿠 주변 영해를 침범했다”며 주일 중국대사관 측에 전화로 항의함.
- 가나스기 국장이 중국 해경선의 셴카쿠 열도 주변 항해에 대해 “주권 침해이며 이를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고 항의하자 주일 중국대사관의 류사오빈(劉少賓) 공사는 “셴카쿠는 중국 고유 영토”라고 맞섬.

2016. 9. 14.

#### ■ 중일 당국자 전화회담…북 핵실험 용인못해 제재 추진(연합뉴스)

-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계기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13일 오후 전화 회담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힘.

- 외무성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의 핵실험을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북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북핵 6자회담 합의를 존중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음.
- 또 더 강한 제재를 포함한 새로운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해 연대하기로 했다고 외무성은 전함.

2016. 9. 15.

■ **中日 외교장관 통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연대 확인(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감행한 5차 핵실험과 관련, 중국과 일본 외교장관이 지난 14일 밤 통화를 하고 추가 대북제재를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결의 추진과 관련, 연대를 확인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전날 통화에서 “북한은 일본의 안전에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고 지역과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을 현저하게 손상하고 있다. 이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북한을 비난함.
- 기시다 외무상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에게 “책임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의 건설적인 대응을 요구한다”고 말함.

마. 중·러 관계

2016. 9. 10.

■ **〈北 핵실험〉 러 외무부 “中·러, 대북 추가제재 자제 촉구”(연합뉴스)**

-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추가 제재의 자제를 촉구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10일(현지시간) 밝힘.
-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이고르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전화통화를 한 뒤 내놓은 성명에서 이같이 밝힘.
- 외무부는 성명에서 “양측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의 추가적 긴장 고조를 초래할 수 있는 조치들을 자제해줄 것을 모든 관련국에 촉구한다”고 밝힘.
- 하지만 그는 “현 상황은 외교관들이 정세 악화에 단순히 새로운 제재들로 대응하기보다 좀 더 창조적이어서 함을 보여준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위험한 모험주의를 비난하면서도 추가적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고 해당 지역(한반도)을 군사적 충돌 위기로 내모는 행보를 자제해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임.

2016. 9. 11.

■ **중·러, 남중국해 대규모 합동훈련…美, 서태평양서 맞불(연합뉴스)**

- 중국, 러시아가 12일부터 19일까지 영유권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합동 해상 군사훈련을 한다. 이에 맞서 미국 해군도 12일부터 23일까지 서태평양 상에서 대규모 해상군사훈련을 함.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망은 11일 미국의 해상훈련이 중·러 합동훈련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음.
- 이날 량양(梁陽) 중국 해군 대변인은 이번 훈련에 수상함과 잠수정, 전투기와 함재헬기, 수륙양용장갑차 등이 참여하며 대(對)잠수함 작전, 대공·대함 방어, 해공 수색과 섬멸, 도서탈환 및 통제, 해병대 상륙훈련, 연합 구조 훈련 등을 실시한다고 밝힘.

2016. 9. 12.

■ **러·중, 남중국해서 대규모 해상 연합훈련 개시…군사공조 과시(연합뉴스)**

- 러시아와 중국의 연례 해군 연합훈련인 ‘해상연합-2016’이 12일(현지시간) 남중국해에서 시작됨.
- 타스 통신에 따르면 이날 훈련에 참가하는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군함들이 중국 해역에 도착함.
- 한편 러·중 연합훈련에 맞서 미국 해군도 이날부터 서태평양 괌과 마리아나제도 부근에서 1만8천 명의 육·해·공군 및 180여 대의 군용기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해상훈련을 실시함.

2016. 9. 15.

■ **시진핑, 푸틴 측근에 “중·러 안보협력 시급성 커져”(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에게 “현 정세에서 중·러 안보협력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러시아와의 안보협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함.
- 15일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 안보회의 서기와 만나 “양측이 기존의 협력시스템을 기초로 분야별·각급별 안보 협상과 교류를 심화시켜 나가자”면서 이같은 메시지를 전함.
- 시 주석이 말한 ‘현 정세’란 중국 입장에서 북한의 제5차 핵실험, 한미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등을 포함한 한반도 현안과 남중국해·동중국해 문제 등으로 인해 미국, 일본 등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됨.

## 바. 일·러 관계

2016. 9. 12.

### ■ 아베, 북핵대응 러일과 공조해야··중일 외교장관 통화못해(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5차 핵실험에 맞서 강한 대북 제재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으나 아직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2일 열린 정부·여당 연락회의에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대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12일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장마르크 에로 프랑스 외무장관과 전화회담을 했음.

2016. 9. 16.

### ■ 푸틴, 12월 방일 때 피폭 히로시마 나가사키 찾을 수도(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2월 일본 방문 기간에 원폭 피해 도시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방문하는 방안이 양국 정부 간에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공보비서(공보수석)는 15일(현지시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시정부가 푸틴 대통령에게 방문을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방문 일정을 외교채널을 통해 조율하고 있다”고 밝힘.
- 푸틴 대통령은 오는 12월 15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할 예정임.

# III 북한인권

## ■ 개요

| 분류                         | 일자   |   |
|----------------------------|------|---|
| 북한인권<br>국제동향               | 9.10 | 유엔, 北인권침해 책임규명 전문가그룹 임명...정부, 환영(연합뉴스)                            |
|                            | 9.11 | 유럽탈북자단체, 유엔서 김정은 축출 등 근본대책 논의해야(연합뉴스)                             |
|                            | 9.12 | 탈북자단체, 추석날 대북전단 살포 예고(연합뉴스)                                       |
|                            | 9.13 |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 해외 北근로자 인권침해 조사해야(연합뉴스)                              |
|                            | 9.14 | 유엔 인권최고대표, 북한 전역서 중대한 인권 우려 지속(미국의소리)                             |
|                            | 9.15 | 한·일, 유엔 인권이사회서 북한인권 상황 비판(미국의소리)<br>탈북자단체, 파주서 대북전단 15만장 살포(연합뉴스) |
|                            | 9.16 | 유엔, 北에 강제실종 41건 정보 요청...응답 못 받아(연합뉴스)                             |
| 북한인권<br>내부동향               | 9.10 | 北매체, 미국인 대학생 납치설은 악랄한 심리적 모략전(연합뉴스)                               |
|                            | 9.16 | 北 노동단련대 수감자 급증...사망자도 다수인 듯(연합뉴스)                                 |
| 북한인권<br>남한동향               | 9.13 |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공동체기반조성국 설치(연합뉴스)                                    |
|                            | 9.14 | 한국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정훈 전 대사 임명(미국의소리)                                 |
| 탈북자<br>이산가족<br>납북자<br>국군포로 |      |   |
| 대북지원                       | 9.10 | <北 핵실험> 대북교류 NGO도 우려 "자원봉사 기부 멈칫"(연합뉴스)                           |
|                            | 9.13 | FAO "북한, 올해 식량 66만톤 부족"(연합뉴스)                                     |
|                            | 9.14 | 국제적십자, 北 수해복구 52만 달러 긴급지원(연합뉴스)                                   |
|                            |      | 유엔 WFP, 홍수 피해 북한 주민 14만명에 식량 지원(연합뉴스)                             |
|                            | 9.15 | 국제사회, 북한의 홍수 피해 지원 요청에 냉랭한 기운 (미국의소리)                             |
|                            | 9.16 | 北 핵실험으로 대북민간단체 北수해지원 사업도 '올스톱'(연합뉴스)                              |

## ■ 주간 동향

###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6. 9. 10.

#### ■ 유엔, 北인권침해 책임규명 전문가그룹 임명…정부, 환영(연합뉴스)

-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담당할 전문가 그룹을 임명함.
- 외교부는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9일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 인권 침해에 관한 책임을 규명하는 독립 전문가 그룹을 임명했다”고 10일 밝힘. 독립 전문가로는 소냐 비셰르코 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과 사라 후세인 변호사가 지명됨.
- 더불어 외교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과 민생은 도외시한 채 희소한 재원을 정권 유지를 위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쏟아 붓고 있는 것을 개탄한다”며 “주민들이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북한인권 침해 책임규명 독립전문가 그룹 임명 관련 대변인 논평】

1. 정부는 Zeid Ra'ad Al Hussein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16.9.9.(금)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인권 침해에 관한 책임규명 독립전문가 그룹(a group of independent experts on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PRK)을 임명한 것을 환영한다.  
※ Zeid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소냐 비셰르코(Sonja Biserko) 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과 사라 후세인(Sara Houssain) 변호사를 책임규명 독립전문가로 지명
2. 정부는 책임규명 독립전문가 그룹이 북한인권과 국제법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3.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과 민생은 도외시한 채 희소한 재원을 정권 유지를 위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쏟아 붓고 있는 것을 개탄하며, 주민들이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한다.  
\*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설치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보고서(14. 2월 발표)에서 북한에서 광범위하며,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어 오고 있고, 많은 경우가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라고 결론

첨부: 책임규명 독립전문가 그룹 참고사항. 끝.

## 책임규명 독립전문가 그룹 참고사항

### 1. 설치 근거

□ 제31차 인권이사회에서 채택( '16. 3. 23.)된 북한인권결의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제안\*을 반영하여 ‘책임규명 독립전문가 그룹(a group of independent experts on accountability)’ 설치를 결정

\* 다루스만(Darusman) 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6. 2월 제31차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동 전문가 그룹 설치 제안

### 2. 책임규명 독립전문가 그룹 개요

□ 임기: 6개월

□ 임무

- 북한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모색할 적절한 방법 모색
-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포함하여 실용적인 책임규명 메커니즘 권고

※ 북한인권 침해의 가해자/기관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책임규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된 임무

□ 활동 결과: 제34차 인권이사회('17. 3월)에 활동 결과 보고서 제출

□ 구성원: 2명

- 소냐 비셰르코(세르비아, 48년생, 여)
  - '71-'91 유고슬라비아 외교부 근무
  - '13-'14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위원
  - '94- 현재 세르비아 헬싱키위원회(Helsinki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Serbia)\* 창립자 겸 회장
    - \* 헬싱키 위원회는 일부 유럽국가에서 설립·활동 중인 인권 NGO
- 사라 후세인(방글라데시, 64년생 추정, 여)
  - 방글라데시 인권변호사, 국제법률가협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위원
  - '97-'03 국제인권보호센터(INTERRIGHTS) 남아시아 법무담당
  - '16 미국무부 International Women of Courage Award 수상. 끝.



2016. 9. 11.

■ **유럽탈북자단체, 유엔서 김정은 축출 등 근본대책 논의해야(연합뉴스)**

- 유럽의 탈북주민 단체인 재유럽조선인총연합회(회장 장만석)와 네덜란드체류조선인망명자협회(회장 신석철)는 오는 13일 개최되는 유엔총회에서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김정은 정권’ 축출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11일 주장함.
- 두 단체는 이날 최근 북한의 제5차 핵실험과 주민에 대한 인권유린과 관련해 ‘북한 정부는 핵, 미사일 도발 및 주민 인권유린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힘.
- 두 단체는 성명에서 올해 들어 잇단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지난 9일 정권수립일에 실시한 제5차 핵실험을 언급,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유럽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함.

2016. 9. 12.

■ **탈북자단체, 추석날 대북전단 살포 예고(연합뉴스)**

- 북한 핵실험으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탈북자단체가 추석 명절에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함.
-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오는 15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대북전단 30만 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매달아 북으로 날려 보낼 계획이라고 12일 밝힘.
-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추석을 맞아 합동 차례를 지내기에 앞서 대북전단을 보낼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행사 일정은 다시 논의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함.

2016. 9. 13.

■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 해외 北근로자 인권침해 조사해야(연합뉴스)**

- 시나 폴슨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 역할을 하는 해외파견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함.
- 폴슨 소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 사무소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해외파견 근로자들의 열악한 인권실태에 대해 “이동할 수 있는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권리를 박탈당하는 등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 덴마크 출신의 폴슨 소장은 지난해 6월 개소한 북한 인권사무소를 이끌고 있으며,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와 동티모르, 파푸아 뉴기니 등에서 인권활동을 펼친 바 있음.

## 2016. 9. 14.

### ■ 유엔 인권최고대표, 북한 전역서 중대한 인권 우려 지속(미국의소리)

- 제33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가 13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럽 유엔본부에서 개막함.
-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최경림 제네바주재 한국대표부 대사의 사회로 개막된 이날 회의에서,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함.
- 증인들의 증언과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보고서, 위성사진 등을 통해 북한 상황을 감시한 결과, 북한 전역에서 중대한 인권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임. 특히 자이드 최고대표는 모든 공공의 자유에 대한 폭넓은 제한, 방대하고 잔인한 수용소 체제, 고문, 식량권과 경제적 사회적 권리에 대한 침해 등을 지적함. 또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와 특별보고관 등과의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함.
- 13일 시작된 유엔 인권이사회 제33차 정기회의는 오는 30일까지 계속됨.

## 2016. 9. 15.

### ■ 한 일, 유엔 인권이사회서 북한인권 상황 비판(미국의소리)

- 제네바주재 한국대표부의 김인철 차석대사는 14일 회의에서, 전세계에 인권 유린이 만연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면서, 그 중에서 최악은 북한이라고 말함.
-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생계를 무참히 희생하고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면서 얼마 되지 않는 재원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전용하는 터무니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 개탄스럽다는 것임.
- 김 차석대사는 북한 전역에서 여전히 중대한 인권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최근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 작업을 담당할 전문가 그룹이 설치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함. 그러면서, 이 전문가 그룹이 북한의 중대한 인권 유린범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임.
- 제네바주재 일본대표부의 카지 미사코 대사는 북한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함. 이어 일본은 최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2명의 전문가 그룹 위원이 임명된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 이들의 활동에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말함.

- 그러나 제네바주재 북한대표부의 서세평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전역에서 중대한 인권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자이드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전달 지적을 강력히 반박함.

#### ■ 탈북자단체, 파주시 대북전단 15만장 살포(연합뉴스)

-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탈북자단체가 추석인 15일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핵 폐기를 요구하는 전단 15만 장을 살포함.
-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 20여 명은 이날 정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에서 대북전단 15만 장을 대형 풍선 5개에 매달아 북으로 날려 보냄.
- 대형 풍선에 묶인 전단 꾸러미에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과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책자, 미화 1달러짜리 지폐가 담김.

2016. 9. 16.

#### ■ 유엔, 北에 강제실종 41건 정보 요청…응답 못 받아(연합뉴스)

- 유엔이 북한 당국에 강제실종 사건 41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지만, 북한 측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6일 보도함.
- 유엔 산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현재 진행 중인 제33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에 지난해 5월부터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한 연례보고서를 제출함.
- 실무그룹은 보고서에서 이 기간 북한에 강제실종 사건 41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공식 요청했으나 북한 당국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힘.

##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6. 9. 10.

#### ■ 北매체, 미국인 대학생 납치설은 악랄한 심리적 모략전(연합뉴스)

- 북한은 12년 전 중국에서 실종된 미국인 대학생 데이비드 스네든이 현재 북한 평양에서 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악랄한 심리적 모략전이라고 비난함.
- 조선중앙통신은 10일 논평을 통해 “미국이 서방 언론을 내세워 미 중앙정보국 자료기저로부터 입수한 ‘비밀문건’임을 운운하며 ‘미국인 행방불명자 수백 명이 북조선 감옥에 갇혀있다’는 요설을 늘어놓았다”며 “‘미국인 대학생 납치설’을 비롯하여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터무니없는 요언(요사한 말)들을 계속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함.
- 통신은 이어 “그 형식과 수법을 보아도 히틀러파쑈도당을 능가하는 악랄한 심리적 모략전으로서 국제무대에서 높아기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훼손시키기 위한 또 하나

의 정치적 도발”며 “미국이 터무니없는 심리모략전에 매달리는 것은 바로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는 데 필요한 건덕지(건더기)를 만들어 내려는데 있다”고 역지를 부림.

2016. 9. 16.

■ **北 노동단련대 수감자 급증…사망자도 다수인듯(연합뉴스)**

- 당국이 올해 들어 단속과 통제를 강화하면서 단기수용시설인 노동단련대 수감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일본 매체 아시아프레스를 인용해 보도함.
- 노동단련대에 수감됐다가 최근 출소한 북한 여성은 아시아프레스에 “요즘 노동단련대에는 앓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수감자가 있으며, 밀수나 탈북, 직장 무단이탈 등 죄목도 다양하다”고 말함.
- 이 여성은 “강제노동과 열악한 환경 등으로 사망자와 영양실조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자신도) 수감 기간 내내 배고픔과 구타, 강제노동 등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고 덧붙임.
- 이에 대해 아시아프레스 오사카(大阪)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石丸次郎) 대표는 “기본적으로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람들이 (수감) 대상”이라며 “예를 들어 지금 200일 전투를 한창 하고 있는데 허락 없이 무단결근한 사람들, 국경 지역 가까이에서 밀수를 하다가 걸린 사람들, 중국 전화기로 통화를 시도한 사람 등 북한 정권에서 보면 질서를 위반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함.

###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6. 9. 13.

■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공동체기반조성국 설치(연합뉴스)**

-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이달 중 통일부 내 북한인권기록센터와 공동체기반조성국이 신설됨.
- 통일부와 행정자치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힘.
- 한편, 북한인권법에 따라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치되는 북한인권재단은 여야의 재단 이사 추천이 늦어지면서 출범이 지연되고 있음.

2016. 9. 14.

■ **한국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정훈 전 대사 임명(미국의소리)**

- 한국 외교부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고 오늘 (14일) 밝혔다.
-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맡게 된 이정훈 대사는 앞으로 외교무대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는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 이 대사는 지난 2013년 8월 외교부 대외직명대사인 인권대사에 임명돼 3년 간 활동했음.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정훈 前 인권대사 임명  
-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 역할 기대 -】**

1. 지난 9.4.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직에 이정훈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前 인권대사)가 9.13.(화) 임명되었다.  
 ※ 북한인권법: 제9조2항②: 제1항에 따른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이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이정훈 대사는 2013.8.1. 인권대사(대외직명대사)에 임명된 이래 3년간 인권외교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으며, 특히 북한인권 분야의 풍부한 전문지식과 국제적 감각,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유엔 메카니즘의 국제회의, 민간세미나, 인권행사 등 다양한 계기에 북한인권 문제의 국제적 공론화에 기여해 왔다.

3. 앞으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정부의 양자·다자 무대에서의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고, 세미나, 설명회 등 해외 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북한인권증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 **특이사항 없음**

**5. 대북지원**

2016. 9. 10.

■ **〈北 핵실험〉 대북교류 NGO도 우려 “자원봉사 기부 멈칫”(연합뉴스)**

-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한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국면에서도 활발한

대북 민간교류를 추진해온 민간단체마저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 싱가포르의 대북교류 비영리 민간단체인 ‘조선 익스체인지’(Choson Exchange)는 10일 홈페이지에 ‘또다시 시작…북한 핵실험 5.0’ 제하 게시물을 통해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이 민간교류에 끼치는 악영향을 언급함.
- 이 단체는 “북한이 첫 핵실험을 단행한 지난 2006년에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후에는 활동했다. 그러나 2017년 활동이 어려워질 것 같다”고 전망함.

## 2016. 9. 13.

### ■ FAO “북한, 올해 식량 66만톤 부족”(연합뉴스)

-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이 약 66만톤에 달한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3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를 인용해 보도함.
- FAO는 지난 12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3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외부에서 충당해야 할 식량 규모가 69만4천톤에 달한다고 밝힘.
- 이 가운데 북한은 외부지원과 수입으로 2만9천(8월 기준)을 확보하는 데 그쳐 66만 5천톤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FAO는 설명함.

## 2016. 9. 14.

### ■ 국제적십자, 北 수해복구 52만 달러 긴급지원(연합뉴스)

-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이 최악의 홍수피해가 난 북한 함경북도의 수재민을 돕기 위해 52만 달러(5억9천만원 상당)를 지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4일 보도함.
- IFRC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함경북도의 수재민들을 위해 52만 달러의 특별예산을 투입했다며 “재난구호 긴급기금을 사용해 북한에서 수해를 입은 5천 가구, 2만 명을 즉각 지원한다”고 밝힘.
- IFRC는 “특별지원금 투입에 앞서 지난 2일 2천500 가구에 이어 5일 또 다른 2천500 가구에 비닐 박막과 주방기기, 이불, 위생용품, 물통, 수질정화제, 공구 등을 분배했다”면서 “(내년 3월 2일까지) 앞으로 6개월 동안 수재민들에 대해 지원을 하는 한편 북한 내 적십자 창고에 예비구호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 ■ 유엔 WFP, 홍수 피해 북한 주민 14만명에 식량 지원(연합뉴스)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최근 심각한 홍수 피해를 본 북한 주민 14만 명에게 식량

지원을 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힘.

- WFP는 이날 자료를 내고 북한 역사상 최악의 홍수 피해를 본 함경북도와 양강도 주민들에게 긴급 구호 식량을 나눠줬다고 설명함.
- WFP의 달린 타이모 북한사무소장은 “마을 전체가 홍수로 물에 잠겼다”며 “주민들은 텃밭과 가축을 포함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함. WFP는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서 수해 주민들이 더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릴 수 있다고 우려함.

## 2016. 9. 15.

### ■ 국제사회, 북한의 홍수 피해 지원 요청에 냉랭한 기운 (미국의소리)

- ‘북한이 핵실험으로 전세계에 대항하면서 이제 홍수 재난에 대해 (국제사회에) 원조를 구하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신문이 지난 13일 북한의 홍수 피해 소식을 전한 기사의 제목임.
- 이 신문은 북한 당국이 홍수 피해에 대해 국제기구들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지원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며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지적함.
- ‘워싱턴 타임스’는 분석가들을 인용해 북한이 핵 시설과 핵무기 제조에 적어도 15억 달러를 투입했다며, 이 돈을 홍수 피해를 줄이는데 사용했어야 했다고 지적함. 영국의 ‘BBC’ 방송 역시 14일 홍수 피해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 당국이 해방 후 처음 있는 재앙이라고 밝혔지만 이런 긴급 사태가 북한 매체에서는 주요 소식이 아니라고 지적함.
- 한편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14일 한국 등 과거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했던 나라들이 대북 지원을 더욱 꺼리고 전함. 이들 나라 정부들은 북한 정권이 국가 재원을 핵무기 프로그램에 허비하는 것을 비난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함.

## 2016. 9. 16.

### ■ 北 핵실험으로 대북민간단체 北수해지원 사업도 ‘울스톱’(연합뉴스)

-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이 최악의 수해를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한 복구지원 사업을 벌이기로 했으나 북한의 5차 핵실험 벽에 부딪혀추진이 어렵게 됨.
- 국내 59개 대북지원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관계자는 16일 “지난 9일 오전 8시 긴급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대북 수해복구 지원사업을 결의했다”면서 “하지만 회의가 끝나자마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원사업 추진 일정이 울스톱됐다”고 밝힘.
- 이 관계자는 “의약품이든, 생필품이든 북한 이재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품목을

가리지 않고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라면서 “언제든지 북한에 지원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준비에 착수했지만 언제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호소함.